문학석사 학위논문

나혜석의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연구

-「경희」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송 명 희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3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전공

이 미 화

이미화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3년 2월 일

주 심 문학박사 조 동 구

위 원 문학박사 남 송 우

위 원 문학박사 송 명 희

< 차 례 >

국문요약 iii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사 검토 4
3. 연구 방법과 연구 범위 16

II. 생애에 나타난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24

1. 자전적 체험 24
2.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한 저항 민족주의자 31
3. 여성적 글쓰기에 대한 자각과 실천 38

III. 「경희」에 나타난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46

1. 가부장제 여성으로서 본 「경희」 49
   1) 여성 교육의 필요성 인식 49
   2) 여성 노동의 긍정성 인식 61
   3) 하녀와의 평등관계 지향 70
2. 피식민지인으로서 본 일본 제국주의 여성교육과 「경희」 77

IV. 나혜석의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의 의의 및 한계 90

V. 결론 94

참고문헌 97

영문초록(Abstract) 104

국 문 요 약

탈식민주의 페미니즘(post-colonial feminism)은 탈식민주의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 이론이다. 탈식민주의는 식민통치라는 억압의 근대 역사가 남긴 유산을, 즉 식민지 시대뿐만 아니라 독립을 한 후에도 계속 남아 훨씬 더 교묘하고 복잡한 형태로 파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식민 지배의 잔재를 탐색해서 그것들의 정체를 밝혀냄으로써 그것들에 대항하고자 한다.

탈식민주의의 이러한 시각에 토대를 둔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은 남성중심사회에서 타자로 인식되어 온 여성, 그리고 여성 중에서도 서구 여성이 아닌 주변부 여성의 문제를 다룬다. 즉 탈식민주의와 페미니즘은 억압적 지배사회 속에서 주변화되어 온 '타자들'을 복원하는 것을 공동의 목표로 삼아왔다. 이들은 포스트구조주의를 수용하면서 젠더/인종, 가부장제/식민주의의 위계와 이항대립을 거부하고 전복시키려는 공통점을 보인다. 다시 말해서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은 탈식민주의에서 도외시한 젠더(gender) 문제를 포함시키고 있는데, 젠더 문제를 도외시한 채 제3세계 여성이 겪는 이중 식민화를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본 논문이 논의하는 나혜석은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시각에 따라 살피면 '피식민자'이면서 '여성'이라는 이중성을 지닌 존재로 파악된다. 왜냐하면 나혜석은 김활란, 박인덕 등과 함께 3·1독립운동의 주동자로 활약하다가 비밀집회와 독립만세 참가모의로 검거되어 5개월간 옥고를 치르기도 한 피식민지인이며, 그녀의 생애를 고찰해 볼 때 가부장제하의 억압받은 여성의 운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경희」(1918)는 그녀의 여섯 편의 단편소설 가운데에서 가장 압권에 속하는 작품으로, 아버지가 강요하는 결혼과 전통적 여성으로서의 삶보

다는 인간으로서의 자각과 주체성의 확립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을 받는 일이 선결과제라는 주제를 표현한 작품이다. 그녀는 근대적 교육이 전통적 여성 역할의 수행에도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여성 교육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경희」에서 경희가 이상적 신여성으로 설정한 여성도 식민국가가 제시한 현모양처 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으며, 식민 모국과 피식민지 남성이 형성해 놓은 성역할 분담론에 토대하고 있었다.

그런 까닭에 과거 피식민지의 역사나 문학을 재조명해 보는 이론인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비평 관점에서의 연구가 필요해 지는 것이다.

본 논문은 나혜석의 단편소설 「경희」를 중심으로 나혜석의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의 의의 및 한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나혜석의 생애를 연구함에 있어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한 저항민족주의자로서, 여성들도 자신의 목소리와 언어를 되찾아야만 한다는 점에서 여성적 글쓰기를 주장하고 실천한 삶에 초점을 맞추어, 저항적인 탈식민주의 페미니스트로서의 삶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경희」는 신여성에 대한 억압 중 전통적 가부장제의 억압에는 저항했지만, 일본 제국주의의 피식민지 여성에 대한 억압에는 식민지 현모양처론 내에서 사고하는 면모를 보이고 있는 점을 살펴보았다.

일제의 식민통치 하에서 근대화를 겪었던 우리나라로서는 근대성에 대한 반성에서 반드시 탈식민주의 시각이 필요하며 우리사회에서 식민시대 여성사를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관점에서 다시 재해석하는 일은 그러므로 분명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작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때 우리 여성문학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I. 서론

1. 연구 목적

19세기 말엽에 시작된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는 비단 경제적, 정치적 착취뿐만 아니라 식민지인들의 문화와 전통, 고유한 가치관을 송두리째 짓밟는 엄청난 폐해를 초래하였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국가가 된 많은 식민지 국가들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새겨진 제국주의의 부정적인 영향을 근절하지 못한 채 진정한 주권 행사를 방해받아 왔다.[1)]

일제의 식민통치 하에서 근대화를 겪었던 우리나라로서도 근대성에 대한 반성에서 반드시 일본 제국주의의 경제적·정치적 착취에 뒤이은 피식민지인으로 문화와 전통, 고유한 가치관이 짓밟히는 폐해에 대해 언급하고 넘어가야만 한다. 특히 피식민지인이며 동시에 가부장제하의 여성으로서 겪었을 억압은 분명 같은 피식민지인 남성이 겪었을 억압보다 한층 중층적이었을 것이다.

피식민지인이며 가부장제하의 여성으로서 겪었을 억압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부터이다. 특히 문학에 부분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그것이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비평이다.

나혜석은 근대 초기의 대표적 페미니즘 이론가이자 문학가이다. 그동안 그녀에 대한 관심은 적지 않았지만 나혜석이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로

1 태혜숙,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여이연, 2001, 33면

서 2000년 2월에 문화부가 제정한 '문화인물'로 선정됨으로써 새로운 관심과 평가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그간 선각적이었지만 실패한 신여성의 모델로서 그의 화려하면서도 파란만장했던 생애가 호사가의 입에 자주 오르내렸던 불명예를 씻고, 새 천년의 이상적 여성모델로서 역사적·사회적 재평가를 받게 되었다.[2)]

1896년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난 나혜석은 활달한 성격과 명석한 두뇌로 일찍부터 뛰어난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부유하고 개화된 집안의 분위기와 이미 외국유학을 경험한 오빠들의 권유로 1913년(17세)에 동경 유학의 길에 올랐다. 당시 동경 유학생들의 기관지인 『학지광』에 근대적 여성의 권리를 부르짖은 「이상적 부인」(1914)을 발표하여 페미니스트로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여자 유학생들로 구성된 <조선여자친목회>를 조직하여 잡지 『여자계』를 발간하기도 했다. 동경여자미술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나혜석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로 여러 차례 입상 경력이 있는데, 1930년과 1931년에는 조선미술전람회에서 특선을 하였으며, 1931년 동경에서 열린 제전(帝展)에서도 입선하는 등 서양화가로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했다.[3)]

이런 나혜석은 당대 사회에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글들을 발표한다. 그녀의 글들은 여성으로서 가부장제가 지배하는 식민지 조선사회를 살아간 구체적 경험에 근거해서 기존의 통념들에 도전하고 여성에 대한 '신화'를 해체하는 작업이었으며, 그의 파란 많은 삶은 그러한 자기의 이론을 실천하는 과정이었다.

나혜석은 '이름과 풍문만 요란히 남아 있고 실제 작품이 거의 없거나 보잘 것 없는', '제1기 여류작가'로 곧잘 부정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이것

---

2 송명희 외, 『페미니즘 정전 읽기 I』. 푸른사상사, 2002, 134~135면

3 송명희, 『이광수의 민족주의와 페미니즘』, 국학자료원, 1997, 306면

은 잘못된 견해이다. 최근 정리된 나혜석 전집[4]은 시, 소설, 수필, 희곡, 논설 등 수많은 작품을 그녀가 남겼음을 입증해 주며, 단편소설 「경희」만으로도 나혜석은 1910년대 한국 근대문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작가로 평가될 수 있으며, 계속 새로운 작품들이 발굴됨으로써 근대문학 최초의 여성작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나혜석의 글들이 보여주는 일관된 주제는 '사람이 되고저' 라는 것이었다. 즉 인간으로서의 주체성 확립은 나혜석이 여성으로서 추구한 평생의 목표였다. 여자도 사람이라는 것,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것, 사람의 대우를 받아야겠다는 것, 여성에게도 자아가 있다는 것, 여성의 육체적 조건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서 여성의 입장에서 공론화 시켜야겠다는 것, 그것이 물의를 일으키고 욕을 먹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여성의 역사에서 의의 있는 일이라면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근대 조선여성으로서 나혜석이 지닌 자의식이었다.

본고는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비평의 시각에서 식민지 조선사회를 온몸으로 살아낸 나혜석의 「경희」를 고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단편소설 「경희」는 그녀의 여섯 편의 단편소설 가운데 가장 압권에 속하는 작품이며, 그녀의 페미니즘 사상이 집약적으로 형상화된 자전적 소설로, 전통적 여성으로서의 삶보다는 인간으로서의 자각과 주체성의 확립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을 받는 일이 선결과제라는 주제를 표현하였다. 그렇지만 경희가 이상적 신여성으로 설정한 여성도 식민 국가가 제시한 현모양처 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으며, 식민 모국과 피식민지 남성이 형성해 놓은 성역할 분담론에 토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

4 이상경 편집교열, 『나혜석 전집』, 태학사, 2000
서정자 엮음, 나혜석기념사업회간행, 『원본 정월 라혜석 전집』, 국학자료원, 2001

2. 연구사 검토

나혜석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두 개의 양극적인 고정관념의 틀 위에 세워져 왔다. '유명무실한 문사이며 방종으로 몰락한 여성'이라는 이미지와 '근대 여성운동의 선구자로 가부장제의 제단 위에 바쳐진 제물'로서의 이미지이다.

전자는 가부장제의 대표적 수혜자라 할 수 있었던 김동인이 「김연실전」에서 김명순, 나혜석, 김일엽을 폄훼시켜 지칭한 이래 초기의 나혜석 평론가 혹은 허구적 전기작가들이 답습하여 채택한 부정적 경우로 염상섭[5], 임종국[6], 김윤식[7], 김동인[8], 김일엽[9], 이명온[10] 등이 있다.

후자는 전자에 대한 안티테제로서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조명한 긍정적 경우로 김종욱[11], 서정자[12], 정순진[13], 전미정[14], 이호숙[15], 송명희[16], 안

5 염상섭, 「추도」, 『신천지』, 1954. 1.

6 임종국, 「나혜석편」, 『흘러간 성좌』, 국제문화사, 1966

7 김윤식, 「여성과 문학」, 『아세아여성연구』 제7집, 숙명여대 아세아여성연구소, 1968

8 김동인, 「김연실전」, 『김탄실: 나는 사랑한다, 한국근대여류선집2』, 솔뫼, 1981

9 김일엽, 「누가 돌을 던지랴, 이 자유에게」, 『불꽃여자 나혜석의 꽃의 파리행』, 오상사, 1983

10 이명온, 「그 찬란한 꽃과 꽃잎의 생애」, 『불꽃여자 나혜석의 꽃의 파리행』, 오상사, 1983

11 김종욱, 『라혜석-날아간 청조』, 신흥출판사, 1980

12 서정자, 『나혜석 연구」, 문학과 의식, 1988 가을

13 정순진, 「정월 나혜석의 초기 단편소설고」, 『한국문학과 여성주의 비평』, 국학자료원, 1993

14 전미정, 「나혜석의 삶과 여성의식」, 『한국 여성문학 비평론』, 개문사, 1995

15 이호숙, 「위악적 자기 방어기제로서의 에로티즘」, 『페미니즘과 소설비평』, 한길사, 1995

숙원[17], 이상경[18], 김복순[19] 등이 있다.

근래에 들어서 여성 연구자 중심의 페미니스트 연구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나혜석에 관한 석사학위 논문으로는 홍복선[20], 최수[21], 곽경숙[22], 박명숙[23], 최지원[24], 황민수[25], 권영아[26], 김수경[27], 김영아[28], 박세현[29], 한정

16 송명희, 「이광수의 민족주의와 페미니즘」, 국학자료원, 1997
----, 「섹슈얼리티·젠더·페미니즘」, 푸른사상사, 2000
----, 「페미니즘 정전 읽기 I」, 푸른사상사, 2002

17 안숙원, 「나혜석 소설 경희의 재검토-예술의 틀짜기와 삶의 틀 부수기」, 나혜석기념사업회, 「나혜석 바로알기 제1회 국제심포지엄」, 1999.12.10
----, 「나혜석 문학과 미술의 만남」, 나혜석기념사업회, 「나혜석 바로알기 제3회 심포지엄」, 2000.1.15

18 이상경 외, 「한국근대민족문학사」, 한길사, 2000
----, 「나혜석 전집」, 태학사, 2000
----, 「인간으로 살고 싶다-영원한 신여성 나혜석」, 한길사, 2000

19 김복순, 「'딸의 서사'에 나타난 타자의 이중성-나혜석의 경희를 중심으로」, 나혜석기념사업회, 「나혜석 바로알기 제4회 심포지엄」, 2001.4.27

20 홍복선, 「한국최초의 여류 서양화가 나혜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1

21 최수, 「한국 근대서양화에 미친 인상파의 영향에 관한 연구 : 오지호, 나혜석, 이인성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8

22 곽경숙, 「나혜석의 회화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23 박명숙, 「나혜석의 작품에 나타난 사상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24 최지원, 「나혜석 문학 연구 : 「경희」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25 황민수, 「정월 나혜석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26 권영아, 「근대문학 초기 여성소설 연구 :김명순, 나혜석, 김일엽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9

27 김수경, 「한국 근대 서양화가 나혜석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28 김영아, 「정월 나혜석 연구 :그의 수필에 나타난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인천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29 박세현, 「나혜석 문학과 여성의식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희[30], 김선애[31], 김윤주[32], 서은혜[33], 김수연[34], 최경식[35], 장미숙[36], 변정애[37]가 있다.

본고에서 논의 하고자 하는 단편소설 「경희」에 관한 연구로는 서정자, 정순진, 이호숙, 이상경, 이유진, 김미현, 송명희, 최지원, 노영희, 권택영, 김현화, 안숙원, 정영자, 최혜실, 윤범모, 염혜정, 김윤주, 김복순 등이 있다.

우선 서정자는 「경희」의 발굴 외에도 나혜석의 작품을 새로운 관점에서 비교적 자세히 논하여 문학사적 성과를 재평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38] 서정자는 1988년 한국 여성문학 연구회 제1회 학술발표회에서 1910년대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나혜석 연구」를 발표하여 소설 「경희」의 내용이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한국문학 연구자 쪽에서 나혜석을 새롭게 평가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1910년대 문학사 연구의 대상이 이광수, 최남선과 같은 상투적 인물에서 현상윤, 최승구와 같이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실존을

---

30 한정희, 「1920년대 여성작가의 봉건적 인습에 대한 대응의식 연구 :나혜석·김일엽·김명순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31 김선애, 「나혜석 연구」, 수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32 김윤주, 「나혜석 문학 연구 :작품에 나타난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33 서은혜, 「나혜석 작품 연구」,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34 김수연, 「나혜석의 자기성취욕과 모성과의 관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35 최경식, 「나혜석(1896-1948)의 생애와 여성해방운동」,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36 장미숙, 「정월 나혜석의 개화기 여성계몽 교육이념 및 실천활동 분석」,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37 변정애, 「나혜석 회화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38 서정자, 「나혜석 연구-1910년대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문학과 의식』, 1988 가을

붙잡고 씨름하던 이들로 옮겨가던 시점에 발굴된 「경희」는 같은 시기 더한 고난을 겪고 있었던 여성 지식인, 즉 신여성의 자의식을 보여주는 뛰어난 성과물로 평가된다. 「경희」는 여성개혁을 주장[39]하며, 가사노동 담론 분석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가사노동의 묘사를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도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할 만한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40] 또한 원고 길이가 2백자 원고지 125장이며 여성지식인이 주인공으로 구성과 문장 등에서 완벽한 현대 단편소설의 양식을 구사한 소설이라 했다.[41]

정순진은 채트만(Chatman)의 이론에 기초해서 사건적 요소와 사물적 요소를 텍스트의 분석틀로 사용하여 이광수의 작품 「윤광호」와 나혜석의 작품 「경희」를 비교 분석하면서 「경희」가 근대 단편소설 모색기의 작품이지만 내용이나 형식면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보여준다고 평가하였다.[42]

이호숙은 「경희」를 여권의식과 애국심 고취를 주제로 하는 소설로 보았다. 「경희」가 현모양처의 부덕이라는 것이 다름 아닌 가부장제의 노예만들기라고 간파하며 학식을 통한 실력 배양으로 여권을 획득하자는 내용을 서술하지만 그녀가 의식한 청중은 이미 신교육을 받은 여성층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내용이 풍부하면서도 쉽게 이해시키는 문장력을 구사하여, 글 흐름은 조리정연하고 자연스러우며, 어조에 있어서는 담담함과 열정, 완곡함과 강건함, 겸양과 당당함을 자유자재로 구사하여 1910년대의 시대문체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43] 그리고 나혜석 연구가 수

---

39 서정자, 「나혜석의 처녀작 부부에 대하여」, 『여성문학연구』 창간호, 한국여성문학학회, 1999

40 서정자, 『한국여성소설과 비평』, 푸른사상사, 2001

41 서정자 엮음, 나혜석 기념사업회 간행, 『원본 정월 라혜석 전집』, 국학자료원, 2001

42 정순진, 「정월 나혜석의 초기 단편소설고」, 『한국문학과 여성주의 비평』, 국학자료원, 1993

적으로 방대한 그의 산문을 등한시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며 나혜석의 산문을 시기별로 고찰했다. 특히 산문의 뚜렷한 형식적 특성으로 대화 형식을 지적하고 있으며, 산문의 특성은 그의 전기적 특성과도 관련이 깊은데 자기방어의 기제라고 평가하고 있다.[44]

이상경은 「경희」를 이상적인 근대적 여성의 형상화로 보았다. 여성에 대한 다양한 봉건적인 관념들을 구체적인 인물을 통해 형상하고 각각의 관념들에 대해 적절한 반론을 경희의 행동을 통해 배치함으로써 작가는 낡은 관념에 대한 새로운 관념의 추상적 선언이 아니라 개성적인 인물들의 현실적 삶 속에서의 구체적인 갈등상을 포착했으며, 소설가로서의 나혜석의 작가적 역량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45] 나혜석의 단편소설들이 현실의 어두운 면을 폭로하는 한편 아직 적극적인 현실 변혁의 전망을 획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민하는 지식인의 내면세계를 세밀하게 형상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경희」는 당대 남성작가의 소설보다 더 근대 소설적 면모를 갖추었다고 주장하고 있다.[46] 그녀는 나혜석의 글들을 모아 전집으로 출간하였으며, 여기서 「경희」는 부르주아 계몽문학으로서 동시대 남성들의 소설보다도 사실성이나 구성력, 인물의 성격화에서 뛰어난 작품이고, 섣불리 남성들에게 비난과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여성에 대한 적대감과 오해, 의식에서 앞서가는 여성이 자칫 범하기 쉬운 관념적 선진성을 비판하는 데 힘쓰고 있다고 보았다.[47] 나혜석의 생애를 근대 조선사회에 여자로 태어

---

43 이호숙, 「나혜석 문학 연구- 그 페미니즘의 허와 실」, 『문학과 의식』, 1994 가을호

44 이호숙, 「위악적 자기 방어기제로서의 에로티즘」, 『페미니즘과 소설비평』, 한길사, 1995

45 이상경, 「가부장제에 맞선 외로운 투쟁」, 『역사비평』, 1995 겨울호

46 이상경 외, 『한국근대민족문학사』, 한길사, 2000

난 점에 초점을 맞추어 '인간이 되고자' 주장하고 실천한 삶이라고 고찰했으며, 「경희」가 등장인물의 가족관계와 묘사되는 사건 등으로 미루어 나혜석의 자전적 소설이며, 거의 실재했던 사실로 보아도 무리가 없어 주인공 '경희'란 바로 나혜석 자신이라고 했다.[48]

이유진은 「경희」가 근대적인 여성의 자의식을 형상화했고, 다양한 처지의 구식여성들을 등장시켜 그들이 신여성에 대해 가지는 여러 종류의 편견을 묘사하면서 그것을 불식시키고 여성도 교육을 받아야한다는 당위성을 일깨우기 위하여 경희가 일부러 더 가사를 조리있게 열심히 해치우는 행동과 그녀의 심리를 묘사해내는 것은 단순히 목소리만 높이는 계몽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이며, 그만큼 현실의 벽이 강고하다는 것을 작가가 알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보았다.[49]

김미현은 대화와 논쟁의 생산성과 '다툼'으로 「경희」를 분석했다. 나혜석의 「경희」는 언어의 생산성을 주인공 경희의 갈등상황을 통해 드러내고 있고, 이러한 생각은 경희의 입을 통해 실제로 발설되지는 못하고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내부 대화의 형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러한 대화의 언어 자체가 경희가 선택해야 하는 두 갈래의 길을 대변하는 은닉된 논쟁의 언어로 발전한다고 보았다.[50]

송명희는 「경희」와 이광수의 「개척자」를 비교 분석하였는데, 「경희」가 1910년대 후반의 소설사적 목록에서도 가치적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뛰어난 작품임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개척자와 비교해 볼 때, 작품상에 나타난 페미니즘 의식의 변화란 면에서도「경희」의 여주인공

47 이상경 편집교열, 『나혜석 전집』, 태학사, 2000

48 이상경, 『인간으로 살고 싶다-영원한 신여성 나혜석』, 한길사, 2000

49 이유진, 「1920년대 한국 여성시 연구 - 김명순, 김일엽, 나혜석의 시를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50 김미현, 『한국여성소설과 페미니즘』, 신구문화사, 1996

의 실천적 태도가 돋보임을 지적하고 있다. 소설적 기법에서도 「경희」의 주인공이 극적 독백과 내적 독백, 심리 서술 등의 다양한 서술 기법을 구사한 점에서 훨씬 설득력 있는 소설로 형상화되었음을 밝히고 있다.[51] 그리고 나혜석의 페미니즘을 자유주의에서 급진주의 페미니즘으로 변모하였다고 밝히며, 「경희」에서 보여준 갈등은 당시 나혜석 자신의 개인적 실존적 갈등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동시대의 신여성이 겪어야 했던 갈등의 한 전형이며, 나아가 나혜석이 당대의 조선여성과 사회를 향해서 외치고 싶었던 여성해방의 명제라 했다.[52] 나혜석의 페미니즘 사상은 소설「경희」에서 집약적으로 형상화되었으며, 나혜석은 여성교육의 필요성과 자아의 주체성에 대한 자각을 강조하며, 남녀차별의 사회현상을 비판하고, 그 원인을 잘못된 사회제도와 성차별적인 교육에서 발견하고자 하며, 결혼제도를 통한 남녀의 역할분담과 성별분업을 인정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53]

최지원은 나혜석이 「경희」를 통해 교육의 중요성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며 사회의 봉건적인 가치관을 변화시키고자 한 것이지만 나혜석은 등장하는 모든 여성을 가사 노동에 집중시킬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 우위에 놓고 있는 경희는 슈퍼우먼 콤플렉스에 빠진 듯이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해내고자 하는 욕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장면들은 여성 해방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나혜석의 봉건적 한계의 노출이라고 보았다.[54]

노영희는 「경희」를 '이상적 부인'을 소설화한 작품이라 했다. 나혜석

---

51 송명희, 『이광수의 민족주의와 페미니즘』, 국학자료원, 1997

52 송명희, 『섹슈얼리티 · 젠더 · 페미니즘』, 푸른사상사, 2000

53 송명희, 『페미니즘 정전 읽기 I』, 푸른사상사, 2002

54 최지원, 「나혜석 문학 연구- 경희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은 귀국해서 처음으로 발표한 「경희」에서 자신이 동경체험 중에 느꼈던 이상적 여인 막다의 삶을 경희의 삶을 통해서 실지로 형상화시키고 있다고 보았다.[55]

권택영은 단편「경희」는 읽는 이의 마음을 고무시키는 열정에 가득찬 글이고, 여성도 과거처럼 결혼해서 순종적으로만 살게 아니라 사회에서 남성 못지 않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았다. 여성의 일과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연결되어 여성의 자각과 사회의식이 함께 있다고 평가했다.[56]

김현화는 나혜석이 소설 「경희」와 「회생한 손녀에게」, 시 「인형의 집」을 발표하여 남녀평등사상, 가사노동에서의 여성해방, 여성교육과 사회진출의 필요성 그리고 애국심 고취 등을 주장하였다고 보았다.[57]

안숙원은 「경희」를 담화론적 입장에서 연구하였는데, 「경희」의 소설적 결구의 핍진성도 당대의 기대지평을 넘어서고 있고 묘사중심의 소설이며 병치법에 의한 공간지향형 담화구조라 하였다.[58] 또 「경희」에서 식민적 감수성의 표현을 발견할 수 있고, 나혜석이 화가였기에 동시대 다른 작가들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묘사의 구체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고 했다.[59]

---

55 노영희, 「나혜석 그 이상적 부인의 꿈- 동경 유학 체험과 일본 신여성들과의 만남을 중심으로」, 『한림대한림일본학연구』 2, 1997

56 권택영, 「한국문학에 투영된 한국여성의 초상: 사회변동과 여성의식: 여성소설을 중심으로」, 『동국대한국문학연구』 19, 1997

57 김현화, 「한국 근대 여성 화가들의 서구 미술의 수용과 재해석에 관한 연구- 나혜석과 백남순을 중심으로」, 『숙명여대아세아여성연구』 38, 1999

58 안숙원, 「나혜석 소설 경희의 재검토-예술의 틀짜기와 삶의 틀 부수기」, 나혜석기념사업회, 『나혜석 바로알기 제1회 국제심포지엄』, 1999.12.10

59 안숙원, 「나혜석 문학과 미술의 만남」, 나혜석기념사업회, 『나혜석 바로알기 제3회 심포지엄』, 2000.1.15

정영자는 「경희」는 일본여자 유학생인 주인공이 전통적인 결혼과 평범한 여성의 일상적인 삶을 거부하고 가정생활이 개혁과 나라를 구하기 위한 여성의식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경희 스스로가 바느질 잘하고 부엌일 잘하며 고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애롭고, 학교에서 배운 음악의 운율과 색채미학을 생활에 적용하여 공부하는 여학생의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신여성들에게 가지는 부정적인 선입견을 불식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60]

최혜실은 소설 「경희」가 모범생 콤플렉스를 드러내고 있는데, 주인공 경희는 일본 유학한 여성으로서 신여성이면 교만하고 사치스러우며 집안일을 할 줄 모른다는 주위의 선입관을 보기 좋게 물리치고 있지만 가정일과 사회일을 병행시킬 수 없는 여성들을 배려하지 않았다고 했다.[61]

윤범모는 「경희」는 나혜석 자신의 자전적 성격이 강한 소설로 짐작하며, 가족사를 살필 때 부친의 축첩 문제를 확인한 바 있기 때문에 초기의 나혜석은 '둘째 콤플렉스'가 중심주제라고 주장했다.[62]

염혜정은 나혜석이 여성해방의식, 계몽의식, 민족의식 사상을 「이상적 부인」, 「부부」, 「경희」, 「회생한 손녀에게」를 발표하면서 활발히 전개시키고 있다고 보았다.[63]

김윤주는 「경희」를 여성의 정체성, 결혼, 노동, 교육으로 나누어 살

---

60 정영자, 「나혜석 연구- 그의 문학적 성과를 중심으로」, 나혜석기념사업회, 『나혜석 바로알기 제2회 심포지엄』, 1999.12.10

61 최혜실, 「모성성과 성성의 충돌- 나혜석의 고백」, 『신여성들은 무엇을 꿈꾸었는가』, 생각의 나무, 2000

62 윤범모, 「나혜석 예술세계의 원형 탐구」, 나혜석기념사업회, 『나혜석 바로알기 제3회 심포지엄』, 2000.1.15

63 염혜정, 『여성의 삶과 미술- 나혜석과 현대 여성작가 3인』, 창해, 2001

펴보면서 당대의 다른 작품에 비해 여성의 자각, 정체성 확립, 자각한 지성인의 고뇌 등에 관해 진지한 자세로 설득력 있게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점에서 서사적 관점의 긍정적 측면을 충분히 발휘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여성노동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64]

김복순은 「경희」에서 어머니와 딸 간의 자매애가 실현되어 '딸의 서사'라기보다는 '어머니-딸'의 서사라고 할 수 있고, 경희가 갈망하고 욕망하였던 신여성 기획, 근대화 기획은 기실 이중적 타자성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였다.[65]

이밖에 근대미술사 연구자 쪽에서도 서서히 여성미술로서의 가능성을 조망하는데 이경성[66], 이구열[67], 윤범모[68], 김홍희[69], 박래경[70] 등이 있다.

나혜석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그녀의 예술적인 혼과 계몽적인 비평 활

---

64 김윤주, 「나혜석 문학 연구- 작품에 나타난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65 김복순, 「'딸의 서사'에 나타난 타자의 이중성-나혜석의 경희를 중심으로」, 나혜석기념사업회, 『나혜석 바로알기 제4회 심포지엄』, 2001.4.27

66 이경성, 「미의 십자가를 쥔 여인-나혜석 시론」, 『예술논문집』 1, 대한민국예술원, 1962

67 이구열, 『에미는 선각자였느니라』, 동화출판사, 1974

68 윤범모, 「나혜석 미술의 재조명」, 나혜석기념사업회, 『나혜석 바로알기 제1회 국제심포지엄』, 1999.4.27
----, 「나혜석 예술세계의 원형탐구」, 나혜석기념사업회, 『나혜석 바로알기 제3회 심포지엄』, 2000.1.15

69 김홍희, 「나혜석 미술작품에 나타난 양식의 변화:일본식 관학파 인상주의에서 프랑스 야수파풍의 인상주의로」, 나혜석기념사업회, 『나혜석 바로알기 제2회 심포지엄』, 1999.12.10

70 박래경, 「나혜석 그림, 풀어야 할 당면과제들」, 나혜석기념사업회, 『나혜석 바로알기 제4회 심포지엄』, 2001.4.27

동보다는 그녀의 자유분방했던 개인생활에 관심이 치중되어 있는 느낌이 짙다. 이를테면 이명온이 나혜석을 '불꽃 여자'로 표현하고 있고, 이경성은 '미의 십자가를 진 여인'으로, 김종욱은 '날아간 청조'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그런 예들이다. 나혜석은 근대 여성을 다룬 글에는 거의 모두 언급되고 있지만, 그 여자의 한 면, 소설가로서의 나혜석이나 서양미술가로서, 혹은 여성해방론자로서 나혜석 등, 어느 한 면을 강조하는데 치우친 것이 주류를 이루고, 그녀의 인간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노력이 미흡했다고 보인다.

그러나 나혜석 기념 사업회가 1995년에 설립된 이후 나혜석에 관한 연구는 "우리나라 페미니즘의 씨를 뿌린 창시자"[71], "도전과 좌절, 이상과 현실, 사랑과 증오, 성공과 실패, 영광과 비난 등이 교차하는 인생"으로서 감동적이고 종교적인 처연한 생의 마무리에 주목하고 기존의 연구들이 전공분야별로 연구되어 정작 총체적 인간상으로서 나혜석을 잃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72]

1999년에 나혜석 기념 사업회 주최로 『나혜석 바로알기 제1회 국제심포지엄』이 열려 이후 여러 차례의 연구결과 나혜석의 미술, 소설, 여성해방론, 가족사와 민족의식 등 그녀의 전체적인 면모가 다각적으로 집중조명되어 나혜석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기도 하였다. 『나혜석 바로알기 제1회 국제심포지엄』[73]에서는 나혜석의 삶, 미술, 가족사와 민족의식, 여성해방론의 특색, 「경희」가 연구되었고, 『나혜석 바로알기 제2회 심포지엄』[74]에서는 나혜석의 문학적 성과, 민족의식, 미술의 양식변화, 자

71 유동준, 나혜석 기념사업회, 「나혜석 바로알기 제1회 국제심포지엄 머리글」, 1999.4.27

72 유홍준, 「나혜석을 다시 생각한다」, 나혜석기념사업회, 『나혜석 바로알기 제1회 국제심포지엄』, 1999.4.27. 8~12면

73 나혜석기념사업회, 『나혜석 바로알기 제1회 국제심포지엄』, 1999.4.27

유로운 삶, 「이상적 부인」이 연구되었고, 『나혜석 바로알기 제3회 심포지엄』[75]에서는 「부부」, 나혜석의 삶, 선각적 근대의식, 예술세계의 원형탐구, 문학과 미술의 만남이 연구되었다. 『나혜석 바로알기 제4회 심포지엄』[76]에서는 삶과 시, 민족의식, 몸의 글쓰기인 '날몸'의 시학, 그림, 탈식민주의인 타자의 이중성이 연구되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나혜석에 대한 연구는 다각적으로 이루어졌다. 나혜석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김동인이 「김연실전」에서 '작품 없는 문학생활을 하는 유명무실한 여류문사'라고 여성작가를 통틀어 비난한 왜곡된 관점 이후 잘못된 시각이 생겼다. 긍정적 견해는 김종욱과 이구열에 의해서 이루어 졌고, '나혜석 선집' 형태의 각종 책들은 대개 이들의 성과를 차용하였다. 그리고 「경희」에 대한 연구는 서장자에 의해 「경희」가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이후 시작되어, 여성개혁 주장, 여권의식과 애국심 고취, 이상적인 근대적 여성의 형상화, 슈퍼우먼 콤플렉스, 모범생 콤플렉스 등 1910년대 후반의 소설사적 목록에서도 가치적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뛰어난 작품이라 했다.

하지만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관점에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전기적 연구에 비해 작품 연구는 수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다. 그 중 소설 연구는 「경희」 한 편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여주어 6편에 이르는 작품 전반에 대한 연구가 요망된다. 나혜석에 관한 연구는 나혜석 기념사업회가 결성된 이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고, 앞으로 미발굴의 작품들이 발굴, 발표됨으로써 연구는 가속화될 것이다.

---

74 나혜석기념사업회, 『나혜석 바로알기 제2회 심포지엄』, 1999.12.10

75 나혜석기념사업회, 『나혜석 바로알기 제3회 심포지엄』, 2000.1.15

76 나혜석기념사업회, 『나혜석 바로알기 제4회 심포지엄』, 2001.4.27

3. 연구 방법과 연구 범위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은 탈식민주의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 이론이다. 과거 피식민지의 역사나 문학을 재조명해 보는 이론으로 식민지의 문화가 지배문화에 의해 지배당해온 과정을 주로 다루게 된다.[77] 탈식민주의 인식의 저변에는 자아/타아, 백인/식민지인, 선/악, 문화/자연 등의 서열에서 후자가 열등하고 종속적인 위치로 고정된다는 사실에 대한 비판이 깔려 있다.[78] 그러면 이런 탈식민주의가 언제부터 우리문단에 수용됐는지 살펴보자.

우리 문단에서는 소위 다국적 자본주의 사회의 다문화 시대로 진입하기 시작한 1990년대 이래 『검은 피부·하얀 가면』, 『오리엔탈리즘』, 『문화와 제국주의』, 『포스트콜로니얼 문학이론』이 번역·출간되면서 탈식민주의가 본격 거론되기 시작했다. 『외국문학』, 『현대시 사상』, 『상상』, 『안과 밖』, 『실천문학』, 『21세기 문학』 등 여러 문예비평지들이 탈식민주의를 다루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우리의 관심을 끌게 된 탈식민주의는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 진다.

> 포스트콜로니얼리즘(post-colonialism)은 식민주의 시대를 넘어섰다는 의미에서의 '후기식민주의'보다 독립 후에도 식민상황이 지속되거나 심지어 강화되는 상황을 벗어나려고 한다는 의미에서의 '탈식민

77 김성곤, 「탈식민주의 시대의 문학」, 『외국문학』, 1992 여름호, 20면

78 송명희,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여성주의 이론의 흐름과 실천 부산대학교 개교 55주년 기념/2001 『여성학 학술대회』,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2001.12. 30면

성'을 추구하는 '탈식민주의'로 번역되어야 한다.[79]

그러나 우리는 이제 '포스트콜로니얼'이라는 용어를 식민지시대부터 시작해서 독립을 쟁취한 후인 현재에 이르기까지 제국주의적 과정의 피해를 본 모든 문화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80]

따라서 탈식민주의는 식민통치라는 억압의 근대 역사가 남긴 유산을, 즉 식민지 시대뿐만 아니라 독립을 한 후에도 계속 남아 훨씬 더 교묘하고 복잡한 형태로 파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식민 지배의 잔재를 탐색해서 그것들의 정체를 밝혀냄으로써 그것들에 대항하고자 한다. 말하자면 탈식민주의는 형식적인 독립과 해방 이후 우리의 의식구조를 더욱 근원적으로 틀 지워 온 식민담론을 비판하고 그것에 저항하고자 한다.

탈식민주의의 이러한 시각에 토대를 둔 탈식민주의 페미니즘(post-colonial feminism)은 남성중심사회에서 타자로 인식되어 온 여성, 그리고 여성 중에서도 서구 여성이 아닌 주변부 여성의 문제를 다룬다. 에드워드 사이드의 말대로 '식민지인'이라는 용어에는 문자 그대로의 뜻을 초월해서 여성, 억압받고 있는 하층민, 소수인종들 심지어는 주변으로 밀려난 학문의 세부분야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81] 즉 탈식민주의와 페미니즘은 억압적 지배사회 속에서 주변화되어 온 '타자들'을 복원하는 것을 공동의 목표로 삼아왔다. 이들은 포스트구조주의를 수용하면서 젠더/인종, 가부장제/식민주의의 위계와 이항대립을 거부하고 전복시키려

79 태혜숙, 앞의 책, 32~34면

80 Bill Ashoroft et al., The Empire Writes Back: Theory and Practice in Post-Colonial Literatures (Routledge : London, 1989), pp. 1~2. 김성곤, 「탈중심 경향과 포스트콜로니즘 문학: 탈식민주의와 문화적 제국주의」, 성균관대인문과학 27, 1997, 13면에서 재인용

81 김미현, 『한국여성소설과 페미니즘』, 신구문화사, 1996, 27면

는 공통점을 보인다.[82] 다시 말해서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은 탈식민주의에서 도외시한 젠더(gender) 문제를 포함시키고 있는데, 젠더 문제를 도외시한 채 제3세계 여성이 겪는 이중 식민화를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즉 인종의 차이뿐만 아니라 성차로 인해서 역사에서 소외된 타자인 제3세계 여성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탈식민주의 이론만으로는 부족하며 여기에 페미니즘의 시각이 필요해진다. 이는 서구중심의 페미니즘이 흑인 및 제3세계(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 식민지배를 받은 나라) 여성문제를 도외시한 채 서구의 백인 중산층 중심의 이론이었다는 데 대한 비판을 내포한다.

식민자는 식민지 정복을 불결하고 부정하며 위험한 피식민지를 청소하고 정화하는 일종의 제식 행위로 이해한다. 더 나아가 피식민지의 입구를 여성으로 상징화함으로써 피식민지의 정복과 교화는, 가족의 평화를 위해 여자의 순응을 요구하는 가부장적 사회 논리에 자연스럽게 융합된다.[83]고 아니아 룸바(Ania Loomba)와 앤 맥클린토크(Ann Maclintoque)는 지적한다.

페미니즘 입장에서 볼 때 비단 바바만이 아니라 대다수 남성 탈식민주의 이론가들이 민족 논의에서건, 식민주체/피식민주체 개념에서건 여성의 범주를 간과하고 있다. 그렇다고 탈식민주의 논의에 그저 여성을 덧붙인다고 해서 그 생략에 제대로 대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탈식민주의를 페미니즘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84]

탈식민주의 페미니즘(post-colonial feminism)은 남녀의 관계를 식민주의자와 식민지인의 관계로 새롭게 성찰한다.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에 의

82 유제분 엮음, 『탈식민페미니즘과 탈식민페미니스트들』, 현대미학사, 2001, 14면

83 유제분 엮음, 위의 책, 12면

84 태혜숙, 앞의 책, 45면

하면, 남자는 자신의 이념과 문화와 언어를 표준규범과 절대적 진리로 만들어 여성의 빈 공간에 집어넣음으로써 제국주의적 언술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 된다. 따라서 여성은 자신의 언어와 목소리를 잃고 침묵하고 있는 식민지의 여인이 된다. 그러므로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은 여성들도 자신의 목소리와 언어를 되찾아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많은 사회에서 여성들은 주변화되고 은유적 의미에서 "식민화"된 "타자"의 위치로 추방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깊숙이 관여되어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소외되어 있는 제국의 지배에 대항해 게릴라전투를 벌이도록 강요되고 있다. 그들은 억압과 압제에 시달린다는 점에서, 그리고 자신들의 경험을 압제자의 언어로 표현해야만 된다는 점에서 식민지인들과도 같다. 그러므로 탈식민주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여성들도 자신들의 언어를 구축해야만 한다.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은 또한 중산층 여성들의 관심에만 주력했던 종래의 페미니즘에서 한 단계 진일보하여 인종문제, 계급문제, 그리고 젠더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탐구한다. 그것은 또한 절대적 진리, 가부장적 서열제도, 또는 지배이념을 배격하고 '차이'를 중요시하며 소외된 주변을 새롭게 조명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비서구 국가들이 여성문화와 상황의 통문화적·비교문화적 교류를 통해 보다 다양하고 포괄적인 페미니즘을 창출하려고 한다. 가야트리 스피박이나 토릴 모와가 최근 하고 있는 이론적 작업 역시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여성의 해방언술을 창출하여 자신의 언어를 잃어버린 여성들에게 원래의 목소리를 되돌려주는 것이라 생각했다.[85]

이런 의식을 가진 탈식민주의 페미니스트로는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고

---

85 김성곤,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시대의 문학」, 『외국문학』 제31호, 열음사, 1992 여름, 29~30면

있는 제3세계 출신의 여성 학자들, 가야트리 스피박(Gayatri Spivak), 트린 티 민하(Trinh T. Minh-ha), 찬드라 모핸티(Chandra Talpade Mohanty), 사라 술레리(Sara Suleri), 케투 카트락(Ketu Katrak) 등이 있다.

일견 탈식민주의와 페미니즘은 전혀 다른 별개의 담론으로 보인다. 탈식민주의가 제국주의의 지배적인 인종, 문화의 위계에 대항하는 범국가적 기획인데 비해 페미니즘은 민족 공간의 내부, 또는 민족, 국가 따위의 단위를 초월한 젠더라는 완전히 다른 영역을 개념화하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탈식민 국가에서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많은 논의들을 조금이라도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페미니즘이야말로 계급, 인종 등의 다른 차이들과 더불어 탈식민 국가의 민족주의에 관한 논의에 가장 중요하고 빈번하게 채택되는 관점 중의 하나임을 금방 발견하게 된다.

비록 명확하게 말하여 지지는 않지만 국가는 언제나 하나의 성(性)을 갖는다 …… 국가를 '어머니의 나라'로 상징화하는 것은 국가를 여성으로 체화하는 것이다. 상상된 여성의 몸은 국가를 상징하고 동시에 가부장주의를 침묵시킨다. 그래서 국가는 여성에 의해 시각적으로 재현되며 어머니로서 묘사된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의 모성화는 식민지 국가에서 더 강하게 일어난다고 보아야 하는데 공격적인 남성성으로 연상되는 제국주의에 의한 피식민의 경험은 식민지인들에게 여성적인 희생과 순응을 강요하기 때문이다.[86]

따라서 탈식민 국가에서 젠더의 문제는 단순히 성적인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적인 기획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86 임호준, 「국가로서의 여성: 혁명 후 쿠바 영화에서의 페미니즘과 민족주의」, 『서울대이베로아메리카연구 11』, 2000. 12. 111면

그렇다면 이제 제3세계 여성의 조건을 재현함에 있어 요구되는 것은 그들이 이중적인 억압 체제하에 놓여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즉 그들을 '젠더화된 하위 주체'로 인식하는 것이다.[87]

우리나라에서의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비평은 아직은 주로 식민시대 여성의 삶과 역사를 발굴하고 재해석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는 식민시대 여성사를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다시 쓰는 작업조차도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이런 작업뿐만 아니라 식민시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문화생산물에 대한 분석이나 재해석도 아직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낼 때 우리나라의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비평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88] 한국에서 번역된 책으로는 『탈식민페미니즘과 탈식민페미니스트들』,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이 있고, 발표된 논문[89]도 있다.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은 식민시대 여성의 삶과 역사를 발굴하고 재해석하는 데서부터 오늘날 자본주의 가부장제 사회를 바꾸어나갈 수 있는 페미니스트 주체를 생산하는 데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적지 않은 탈식민주의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처럼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이 제국주의적, 민족주의적, 가부장제의 신화에 맞서는 대항 비평으로 기능할 때, 탈식민주의와 페미니즘의 진정한 제휴가 가능할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여성억압, 여성만이 특수하게 갖는다는 여성적 창조성, 여성문학을 새롭게 이해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인종과 계급이 다

---

87 임호준, 위의 책, 107~109면

88 태혜숙, 앞의 책, 202면

89 류승희, 「드넓은 사가소바다에 나타난 탈식민주의 페미니즘--뿌리 없는 정체성 탐구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송경숙, 「팔레스타인 여성작가 사하르 칼리파 연구-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인식을 중심으로」, 『지역연구』 4, 1995 여름호

른 여성들 사이의 차이를 어떻게 이론화해서 기존 문화 연구 방향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일제의 식민통치 하에서 근대화를 겪었던 우리나라로서는 근대성에 대한 반성에서 반드시 탈식민주의의 시각이 필요하며,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은 우리의 근대를 다시 읽는 시각에도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관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90]

본고가 논의하고자 하는 나혜석은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시각에 따라 살피면 '피식민자'이면서 '여성'이라는 이중성을 지닌 존재로 파악된다. 왜냐하면 나혜석은 김활란, 박인덕 등과 함께 3·1독립운동의 주동자로 활약하다가 비밀집회와 독립만세 참가모의로 검거되어 5개월간 옥고를 치르기도 한 피식민지인이며, 그녀의 생애를 고찰해 볼 때 가부장제하의 억압받은 여성의 운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이러한 페미니즘 사상이 소설 「경희」(『여자계』 2호, 1918)에서 집약적으로 형상화된다. 본 논문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경희」는 그녀의 여섯 편의 단편소설 가운데에서 가장 압권에 속하는 작품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소설인 이광수의 「무정」이 1917년에 발표된 것을 고려한다면 이 작품의 문학사적 가치 또한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경희」는 아버지가 강요하는 결혼과 전통적 여성으로서의 삶보다는 인간으로서의 자각과 주체성의 확립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을 받는 일이 선결과제라는 주제를 표현한 작품이다. 그녀는 근대적 교육이 전통적 여성 역할의 수행에도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여성교육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있다.[91]

---

90 송명희,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앞의 자료집, 30~31면

91 송명희 외, 『페미니즘 정전 읽기 I』, 푸른사상사, 2002, 135~137면

그러나 「경희」에서 경희가 그토록 갈망하고 욕망하였던 경희의 신여성 기획, 근대화 기획은 기실 이중적 억압을 받고 있다. 경희가 이상적 신여성으로 설정한 여성도 식민 국가가 제시한 현모양처 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으며, 식민 모국과 피식민지 남성이 형성해 놓은 성역할 분담론에 토대하고 있었다. 결국 「경희」를 통해 드러나는 근대적 신여성은 조선의 유교적 가부장제가 식민지하 근대적 지식의 힘을 이용하여 새로운 근대적 가부장제를 성립해 가는 가운데 만들어진 것[92]이라는 비판이 있다.

따라서 나혜석은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시각에서 살피면 '피식민지인'이며 '여성'이라는 이중성을 지닌 존재였고, 그녀의 단편소설 가운데 가장 압권에 속하는 「경희」는 근대적 여성교육이 전통적 여성 역할의 수행에도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여성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경희」가 이상적 신여성으로 설정한 여성도 식민 국가가 제시한 현모양처 상을 넘어서지 못했으며, 식민 모국과 피식민지 남성에 의해 형성되어온 성역할 분담론에 토대하고 있는 것이므로 과거 피식민지의 역사나 문학을 재조명해 보는 이론인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비평 관점에서의 연구가 필요해 지는 것이다.

본 논문은 나혜석의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을 연구함에 있어 단편소설 「경희」를 중심으로 살펴보아 나혜석의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의 의의 및 한계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물론 나혜석의 생애를 살펴볼 때는 그녀의 삶을 반영하고 있는 많은 에세이들도 연구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왜냐하면 에세이를 배제한 채 나혜석 소설의 연구만으로는 나혜석의 작가적인 전모를 결코 파헤칠 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

92 김복순, 「'딸의 서사'에 나타난 타자의 이중성-나혜석의 경희를 중심으로」, 나혜석 기념사업회, 『나혜석 바로알기 제4회 심포지엄』, 2001.4.27, 124~125면

II. 생애에 나타난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1. 자전적 체험

나혜석(羅蕙錫 1896~1948 호는 晶月)은 경기도 수원군 수원면에서 태어났다. 나주 나씨 나기정(羅基貞)과 수성 최씨 최시의(崔是議)의 5남매 중 넷째, 딸로서는 둘째로 태어났다.

나혜석의 집안은 고조할아버지 이래 증직으로 각종 벼슬을 받았으며 사람들은 이 집안을 '나 부잣집'이라 불렀고, 아버지 나기정은 한일합방 전후 군수를 지낸 개명관료였다.

언니 계석은 서출인 듯하며 특별히 신교육을 받지 못하고 수원 서문 근처의 완고한 집안에 출가했다. 그 집안은 시아버지나 남편이나 모두 첩을 들여 계석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첫째 오빠는 큰아버지댁에 양자로 갔고 둘째 오빠 경석은 나기정의 대를 이어 맏아들 노릇을 했으며 나혜석의 일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나혜석이 어린 시절에 느낀 갈등이라면 억압받는 여성의 굴욕적 삶에 관한 것이었다. 아버지의 축첩으로 어머니가 고통 받는 모습을(이런 체험은 「경희」에 반영됨), 시집간 언니도 마찬가지로 고민하는 것을(이런 체험은 「원한」 등의 작품에 반영됨), 개명한 오빠에게 시집온 구여성인 올케언니의 불행한 삶을 곁에서 보았기 때문이다.

당시 조선사회에서 조혼과 축첩이라는 서로 맞물린 봉건제도의 폐해는 본처이든 첩이든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게 엄청난 고통을 강요했다. 어린

나혜석도 그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이런 경험들은 훗날 나혜석이 페미니스트로 자기주장을 펴나가는 원초적 경험이 되었을 것이다.[93]

당시 총독부 기관지로 한글로 된 유일한 일간신문이던 <매일신보>는 '재자재원'(才子才媛)이라는 난에 학생의 사진과 우수성을 소개하고 있다.

> '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 본과 졸업생 나혜석'
>
> 온순한 성질은 가정의 칭찬하는 바요, 명민한 두뇌는 학교의 애중하는 바라. 제반 학과를 평균히 잘 닦는 중 특히 수학은 교사로 하여금 그 민첩한 재주를 놀라게 한 일이 많고 장구한 세월을 하루와 같이 근면한 결과 졸업시험에 최우등의 성적을 얻었는데 방년 열여덟의 현숙한 화용에는 장래의 무한한 광명이 저절로 나타나더라.[94]

뿐만 아니라 <매일신보>는 일본 유학생들의 동정에 대해서는 자주 지면을 할애했다. 이것은 당대의 교육열을 반영하는 한편 조선의 지도층이 될 유학생들을 미리 감싸두려는 정책적 배려도 들어 있었을 것이다.

나혜석의 페미니스트로서의 각성과 주장은 그녀의 동경유학에서 그 기초가 형성되었고, 그 후 구미제국의 여행과 파리유학 등에서 구체화되었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하다.[95]

나혜석은 1913년 4월 15일 일본 도쿄에 있는 사립여자미술학교 서양화선과 보통과 1학년에 입학했다. 이 시기 일본에서는 자유연애와 자유이혼을 주장하는 한편 모성을 강조한 엘렌 케이(Ellen Key)의 각종 주장이 번역되어 읽히고 교육론 시간에 강의되었다.

---

93 이상경, 『인간으로 살고 싶다-영원한 신여성 나혜석』, 한길사, 2000, 54면

94 <매일신보> 1913년 4월 1일

95 송명희, 「이광수의 민족주의와 페미니즘」, 국학자료원, 1997, 308~309면

히라쓰카 라이초(平塚雷鳥)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신여성들이 <세이토(靑鞜)>라고 하는 여성해방을 주창하는 문예지를 내면서 개성적인 활약을 하여 여성해방론이 도쿄 청년사회에 드높았다. 세이토 동인 중에는 나혜석이 입학한 사립여자미술학교 선배도 있었다.[96]

따라서 나혜석은 일본에 유학하면서 이러한 세계사적 조류를 직접 접하게 된 것이다.

『학지광』에 글을 발표하며 여성의 선각자로서 자기를 정립해 나가던 나혜석은 처음으로 직접 가부장제의 굳건한 벽에 부딪히게 된다. 그것은 아버지의 결혼 강요였다.

사립여자미술학교에서 1학년을 마치고 돌아온 1914년 여름방학에 나혜석은 사람을 정해놓고 시집보내겠다고 하는 아버지의 강요에 도전하지만 학비가 끊기는 바람에 결국 1915년 1년간 휴학하고 여주공립고보에 취직하여 학비를 모은 후 재차 도일한다.

이 당시 나혜석은 최승구와 열애 중이었다. 최승구(崔承九)는 나혜석보다 네 살 위였고 나혜석의 오빠 나경석의 가까운 친구였다. 오빠의 소개로 둘은 약혼하게 된다. 두 사람은 『학지광』에 글도 쓰고, 함께 예술도 논하였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지적 동반자였던 두 사람의 관계는 최승구가 폐병으로 1916년 4월에 세상을 떠남으로서 끝이 나게 된다.

1910년대 이 시기 도쿄 유학생들은 1910년대 후반 우리 근대 부르주아 계몽주의 문화의 주도적 세력이 되었다. 이들이 근대적 민족운동인 1919년 3·1운동의 주체가 된다. 나혜석도 이들과 같이 3·1운동에 참여한다.

최승구가 죽은 후 일시 발광상태에까지 이르렀던 나혜석은 오빠 나경석의 주선으로 김우영을 만나게 된다. 최승구와 사별한 이래 나혜석은

96 이상경, 앞의 책, 65면

진정으로 사랑하는 상대를 만나지 못하였고 김우영도 마음에 차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과 계산 때문에 나이가 열 살이나 위이며, 상처까지 한 김우영을 결정적으로 내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왜냐하면 그는 나혜석이 3·1운동으로 옥고를 치르고 있는 중에 여러 도움을 주었고, 객관적으로 볼 때 김우영은 신교육을 받고 사회적 지위(변호사)를 갖추었으되 유부남은 아닌, 흠잡을 데 없는 남편감이었기 때문이다. 또 1919년 겨울의 어머니의 죽음은 그녀를 보호자 없는 24세나 된 노처녀의 신세로 만들었다. 따라서 오빠를 비롯하여 주위 사람들은 시집가라고 성화하였다. 이 정황에 대해 나혜석은 "책임 면하려고 시집가라고 성화하던 형제들의 소위가 괘씸하고"(「모된 감상기」), "그러다가 양편 친척들의 권유와 자기 책임상 택일을 하여 결혼한 것이었습니다"(「이혼고백장」)라고 언급하고 있다.

> 일생을 두고 지금과 같이 나를 사랑해 주시오.
> 그림 그리는 것을 방해하지 마시오.
> 시어머니와 전실 딸과는 별거케 하여주시오.[97]

그림 그리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 이는 개인적으로는 결혼하고서도 계속 자기발전을 하고 싶다는 욕망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실천하는 것이며, 시어머니와 전처의 딸과는 같이 살지 않겠다는 것은 가부장제가 더 없이 강고한 조선에서 시어머니의 며느리에 대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거부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나혜석은 김우영과의 관계에서 가부장제에 구속받지 않을 수 있는 조처를 하는 한편으로 결혼(1920년)이라는 새로운

97 이상경 편집교열, 「이혼고백장」, 『나혜석 전집』, 태학사, 2000, 400면
앞으로 『나혜석 전집』은 이상경 편에서 인용하겠다.

생활로 들어갔다.

1921년 9월 만주 안동현 부영사로 부임하는 남편 김우영을 따라 안동현으로 이주하여 1927년 봄까지 햇수로는 6년간 안동에서 살았다. 이 기간은 나혜석 인생의 황금기였다. 아내로, 어머니로, 한 가정의 가사를 돌보고 아이를 키우면서, 여성으로서의 생활체험에서 우러나온 진솔하고도 파격적인 글들을 발표하여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또 짬짬이 스케치 여행에 올라 매번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하여 유화가로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했다.

1927년 6월 19일 나혜석 부부는 구미 여행의 길에 오른다.

최린(崔麟)과의 만남은 프랑스에서 이루어졌다.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사람이었던 최린은 천도교 도령(道領)으로 1926년에 구미 여행길에 나서 미국을 거쳐 파리에 도착한 것이었다.

최린과 나혜석이 파리에서 처음 만나는 자리에는 김우영도 같이 있었다. 이 후 김우영이 법률을 공부하기 위해 베를린으로 가고 나혜석만 파리에 남아 그림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때 김우영은 베를린으로 떠나기 전에 최린에게 나혜석을 부탁하고 떠나게 된다.

1927년 11월 11일 최린과 프랑스인 샬레의 집을 방문하고 함께 파리 관광을 한다. 11월 20일 최린과 셀렉트 호텔에 처음으로 묵게 된다.

최린과 함께 파리를 관광하고, 예술을 논하면서, 잠자리를 같이 한 나혜석은 처음으로 정신적 교류와 육체적 교류가 함께 이루어지는 '영육이 일치되는' 상대를 만났다고 생각한다.

> 영과 육이 부딪칠 때, 존경, 이해, 동정이 얽힐 때 피는 지글지글 끓고, 살은 자릿자릿하고 맥은 펄펄 뛰며, 꼬집어 뜯고도 싶고, 투덕투덕 두드리고도 싶어 부지불각 중에 손이 가고 입이 가고 생리적

변동이 생기나니 거기에는 아무 이유 없고 아무 타산이 없이 영육이 일치되는 것이요, 가면(假面)에 영육을 따로 생각하리까?[98]

1929년 구미 여행을 마치고 시가인 동래에 돌아온 뒤, 1930년 11월 이들은 이혼하기에 이른다. 남성 중심의 조선사회에서 아내의 부정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것은 김우영에게 매우 불쾌한 일이었다. 그런 중에 나혜석이 동래에서 최린에게 편지를 했던 것이 우연히 공개되었다. 이렇게 해서 김우영은 이혼의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 이때 김우영은 이미 다른 여자와 서울에 살림을 차린 후이었고 나혜석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들어주지 않으면 간통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루 건너 한 번씩 편지로 이혼을 요구했다.

"그것은 이론에 지나지 못해요. 모성애는 존귀하고 위대한 것이니까요. 모성애를 잃은 에미도 불행하거니와 모성애에 길리지 못하는 자식도 불행하외다. 이것을 아는 이상 나는 이혼은 못 하겠어요. 오빠, 중재를 시켜주셔요."

"그러면 지금부터 절대로 현모양처가 되겠는가?"

"지금까지 내 스스로 현모양처 아니 된 일이 없으나 씨가 요구하는 대로 하지요."[99]

일찍이 기르는 동안 생겨나는지는 몰라도 여성이 생리적으로 타고난 모성이란 없다고 당당하게 주장했던 나혜석은 여기서 무엇보다도 모성을 강조하고 있다. 15년 전 현모양처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앞장서서 논했던 나혜석은 네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98 나혜석, 「영이야, 육이냐, 영육이냐」, 『삼천리』, 1937년 12월

99 「이혼고백장」, 『나혜석 전집』, 411면

'자기 자신'까지도 잊을 수가 있다고 말한다. 나중에 이혼 후 아이들을 보지 못하는 것이 나혜석에게는 제일 큰 고통이었고 이로 인해 그는 심신이 치명적으로 병들게 된다.

당시 자식에 대한 친권은 아버지가 행사했다. 결혼해서 사는 동안 모은 재산은 모두 남편의 것으로 치부되어 이혼할 때 나혜석은 한 푼도 나누어 받지 못했다.

> 상대자의 불품행을 논할진대 자기 자신이 청백할 것이 당연한 일이거늘 남자라는 명목하에 이성과 놀고 자도 관계없다는 당당한 권리를 가졌으니 사회 제도도 제도려니와 몰상식한 태도에는 웃음이 나왔나이다.[100]

여성에게 정조를 요구하려면 남성 자신도 정조를 지킬 것이며, 남성 자신이 방종하려면 여성에게도 똑같은 자유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혜석이 정조를 지키지 못했음을 문제 삼아 이혼을 강요하던 김우영 자신은 이혼이 성립되기도 전에 다른 여성과 동거에 들어갔다. 이를 문제 삼으면서 나혜석은 그 이전부터 생각해오던 조선사회 가부장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1930년의 이혼, 가족과 사회로부터의 냉대, 병, 정신적 육체적 탈진 상태, 이런 것들이 나혜석을 반신불수의 몸으로 병들게 하였고, 그러다가 1948년 12월 10일 추운 겨울날 행려병자로 죽었다. 지켜보는 가족도, 눈을 감겨주는 따뜻한 손길도 없는 쓸쓸한 죽음이었다.

그녀는 1930년대 중반까지 글을 발표했고 그 이후는 심신이 온전치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1940년대 이후에는 매체가 없었기 때문에 쓰지 못했

100 「이혼고백장」, 『나혜석 전집』, 425면

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화필을 놓지 않았다. 이것은 이 시기의 나혜석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회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한 저항 민족주의자

우리를 식민지로 만든 일본 제국주의는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부터 살펴보자.

일본은 비유럽 국가의 위치에서 유럽의 제국주의를 모방한 형태를 보여주지만, 일본이 민족 국가에서 제국주의로 나아간 과정은 두 가지 점에서 서구의 경우와 다르다. 하나는 일본 자신이 서양의 타자로서 구미 열강의 침략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자유민권운동의 실패로 인해 아래로부터의 자본주의화가 좌절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두 가지 요건은 일본으로 하여금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자율적인 주체의 형성을 매우 어렵게 했다. 일본이 '자유로운 주체'의 이념 대신 이른바 '억압의 이양'을 통해 독립된 국민 의식의 정신적인 균형을 유지했던 것은 그 때문이다.[101]

억압의 이양이란 위로부터의 억압감을 아래의 다른 상대를 억압함으로써 전이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은 한쪽의 억압에 예속되는 대가로 다른 쪽을 당당하게 예속시킬 수 있는 위치를 얻게 해준다.

그러면 일본 제국주의가 서구 오리엔탈리즘을 모방하여, 한국 등 아시아제국을 어떻게 식민화했는지, 특히 한국에 대한 예속의 성격과 특징을

101 마루야마 마사오, 김석근 역, 『현대정치의 사상과 행동』, 한길사, 1997, 61면

살펴보자.

19세기 말 유럽의 제국주의는 팽창하는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가정에 대한 숭배를 유포하고, 천사같이 가정에 충실한 여성을 모델로 제시하였으며, 국외에서는 해외시장의 확장을 위해 영국 국민, 영국 국가의 위대성을 선전하였다. 영국의 식민지가 되는 것은 치욕적인 일이 아니라, 야만인에서 문화인이 되는 영광스러운 일이었다.[102]

> 파농의 분석에 따르면, 정복자들은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원주민들을 미개하고, 열등한 존재로, 나아가 악의 상징으로 종종 묘사한다. 원주민들이 미개하고 열등하므로, '문명의 화신'인 정복자가 이들을 지배, 교화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또한 그들이 악의 상징이므로 그들에게 가해지는 어떤 폭력도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103]

일본의 제국주의도 이와 같은 과정을 모방한다. 19세기 말 일본은 수세기에 걸친 봉건적 지배체제에 종지부를 찍고, 근대적인 통일국가 수립의 첫 발을 내딛었다. 그로부터 겨우 반세기도 되기 전에, 일본은 본국 면적의 80%에 상당하는 식민지를 지배하는 제국주의 국가가 되었다.

이와 같이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영유가 가능했던 이유는 아시아에서 가장 빨리 중앙집권적인 통일국가를 이룬 일본은 근대적인 관료제와 상비군을 정비하여 자본주의에로의 길을 걷기 시작한 반면,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근대적인 지향성을 띤 정치·경제·사상적 발전을 보이면서도 아직 봉건적 지배체제를 청산하고 근대적 통일국가를

---

102 민경숙, 「마사퀘스트:진정한 여성성과 탈식민을 향한 여정」, 『용인대인문사회논총』 6, 2000.12. 96면

103 오민석, 「탈식민주의, 프란츠 파농, 그리고 「감자」」, 『단국대논문집(인문·사회과학)』 33, 1998.12. 198면

수립할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이 일본 군국주의가 한국이나 중국으로 침략할 수 있게 한 가장 큰 조건이 되었다.

한국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의 기점은 1910년대를 1기로 무단통치기, 3·1운동 이후 1920년대를 2기로 문화통치기, 1931년에서 1945년까지를 3기 대륙침략 병참기지 추구기로 나누고 있다.[104]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의 특성은 한국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일본의 식민지들 중 한국이 면적이 가장 넓어 일본의 혼슈(本州)와 거의 같았고, 또 인구도 가장 많았으며, 그 국토의 전영역이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점에서 다른 식민지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일본이 한국을 군사적으로는 병참기지, 경제적으로는 식민지로서의 수탈대상인 동시에 경제적인 전진기지로 삼음으로써 아시아 대륙에 진출하려 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대한 식민정책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정책의 일반적인 특징이 전형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외 일본의 다른 식민지에서 시행된 식민정책과 다른 특징도 지니게 되었다. 그것은 한마디로 통치방식의 '준엄성(가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통치방식의 '준엄성'은 '동화'정책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일본의 대한 식민정책의 다른 특질은 그 경제정책에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주민의 토지를 빼앗고, 그 민족자본의 성장을 불가능하게 하며, 그 지방을 오로지 일본 상품과 자본의 수출대상, 본국으로의 식량과 공급원료의 공급지로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식민지적 경제로의 재편성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토지조사사업'과 회사령

---

104 차기벽, 「일본제국주의 식민정책의 형성배경과 그 전개과정」, 『일본의 한국식민통치』, 정음사, 1985. 19면

을 시행하였다. 동시에 산업, 교통, 운수, 체신, 무역, 금융 등 각 부문도 식민지적 종속경제체제로 재편, 한국경제를 완전 장악하여 정치적·군사적 지배의 기초로 삼고, 일본자본주의의 취약성을 보강하기 위해 원시적인 약탈정책을 감행했다. 그 뿐 아니라 이러한 종속경제체제는 점차 내선일체라는 슬로건 밑에 대륙에로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재편 되어갔다. 이 점에 식민지 한국에 대한 일본 경제정책의 큰 특질이 있었다고 하겠다.[105]

> 프란츠 파농(Frantz Fanon)에 따르면 식민사회는 필연적으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이원대립 관계를 성립시키고, 이 대립관계에서 파생되는 억압 상황은 폭력적 저항을 통해서 극복된다. 이원적 대립관계의 식민사회에서 개인과 집단은 필연적으로 정신적 소외와 주변화 과정을 겪게 되고, 이런 상황은 다시 지배자들이 피지배자를 계속 억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므로 피지배자들에게 폭력과 저항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유일한 수단이며 그러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민족문화(national culture)를 달성하고 민족 국가를 건설(nation-building)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행위이다.[106]

일본의 식민지인 우리나라도 피지배자들의 정체성 회복의 유일한 수단이라 불리는 폭력과 저항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싸웠다. 따라서 한국의 민족주의는 자연히 일본을 상대로 하게 되었으며, 그 이념적 특징은 반침략주의 내지는 반식민주의, 또는 반제국주의로 저항적 성격을 뚜렷이 하였다. 우리 민족이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와 억압하에 놓이게 되

105 유성희·박은경,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정책의 특징과 전개과정」, 『인문사회과학연구』 창간호, 1998, 142~144면

106 태혜숙, 앞의 책, 35면

자, 민족주의가 반침략주의를 표방하고 반식민과 반제국 운동으로 전개되게 된 것은 민족주의의 성격상 지극히 자연스런 변화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민족의 침략으로부터 민족을 수호하고, 강탈당한 주권을 회복하여 독립된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데에 최대 최상의 목표를 둔 식민지 시대의 민족주의는 현실적 전개 과정에서 비폭력적·평화적·무저항적 세력과 폭력적·투쟁적·저항적 세력으로 분화·대립하게 되었다.[107]

1910년 이후 한국은 일본의 온갖 무단적 억압하게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억압과 탄압에 저항하여 일어난 운동이 1919년의 3·1운동이다.

1910년대 일본유학생들은 3·1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만세운동을 조직하고 이끌어갔으며, 1920년대의 합법적인 문화공간 안에서는 민족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문화운동을 펼쳤다. 나혜석은 민족주의자로서 1910년대에 일본 유학을 경험한 세대들과 궤적을 같이하여 3·1운동에 참여한다. 나혜석의 3·1운동 참여과정은 다음과 같다.

김마리아가 나혜석과 접촉했다. 1919년 3월 2일 김마리아와 나혜석은 이화학당 교사인 박인덕의 기숙사로 갔다. 3월 2일의 회합에서 이들은 부인단체를 조직하여 조선의 독립 운동을 전개할 것, 남자단체와 여자단체의 사이에 연락을 취할 것 등을 논의하고 활동자금도 각자 마련하기로 했다. 그리고 각 학교가 휴교할 것과 3월 5일, 남학생들의 독립운동에 가담할 것을 결의했다.

이들과 헤어진 뒤 곧바로 행동에 나선 나혜석은 3월 3일 자금조달을 위하여 개성에 가서 정화여숙의 교장을 만났고 3월 4일에는 평양으로 가서 정진여학교 교사 박충애를 만났다. 박충애는 나혜석과 삼일 여학교 동창인 오랜 친구였고 이미 3월 1일에 평양의 만세운동에 참가한 바가

107 송명희, 『이광수의 민족주의와 페미니즘』, 국학자료원, 1997, 24~25면

있었다. 개성과 평양의 여학생들이 만세운동에 참가해줄 것을 요청하고 3월 5일 나혜석은 서울로 돌아왔다. 서울에서는 같은 날 아침 이화학당 학생들이 만세를 불렀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3월 2일 박인덕의 기숙사에 모였던 여성들은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108] 나혜석도 이때 체포되어 5개월간 감옥(독방)에 갇히게 되었다.

나혜석과 그의 동료들이 겪은 감옥살이는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그들은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버티었다. 이처럼 나혜석은 3·1운동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3·1운동 이후 일본 정부는 만주 조선사람의 문제를 중요하게 보고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일본 영사관에 조선인 부영사를 두게 하였다. 그래서 봉천현에는 양재하(楊在河)를, 안동현에는 김우영을 뽑아서 파견하였다.

1921년 9월 만주 안동현 부영사로 부임하는 남편 김우영을 따라 안동현으로 이주해서 나혜석은 부영사 부인이라는 신분을 이용, 국경을 오가는 독립 운동가들의 편의를 보아주고, 안동현에 여자 야학을 여는 등 민족주의 운동에 일정하게 맥을 대고 있었다.[109] 이것은 나혜석이 독립운동을 후원하리만큼 용기 있는 민족의식을 겸비[110]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객, "여보, R부인 계시오."

R, "네, 누구십니까." 어린애 젖먹이던 채로 안고 나간다.

R, "이게 웬일이요! 전화도 없이."

객, "그런데 큰일 났소."

---

108 국사편찬위원회 편, 「나혜석 신문조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4, 국사편찬위원회, 1990

109 「나혜석-인간으로 살고 싶었던 여성」, 『나혜석 전집』, 21면

110 남부희, 「한국근대 서양화가 나혜석론」, 『협성대협성논총』 8, 1997.12. 487면

R, "무엇이?"

객, "삼동주(三冬紬) 세 필을 사가지고 가다가 세(稅)를 내라는데 엄청나니, 자 어디 봅시다. 영사 부인의 권한이 얼마나 있는가? 좀 모면하도록 못해 주시겠소?"

R, "나는 무슨 재주가 있나?" 태연히 서서 말하며 싱긋 웃는다. 옷을 주섬주섬 갈아 입고 그의 앞을 서 인력거로 정거장을 향하였다. 마침 아는 세관 관리가 있어 꾹꾹 찍어 준다.

그 후 그에게서는 반 놀림의 치하 편지가 왔다.

이러한 가지각색 사건이 되풀이하기를 6년 동안을 두고 하였다.[111]

그 구체적인 예로 '황옥경부폭탄사건'에 관련되어 나혜석 부부는 곤욕을 치렀다. 1923년의 '의열단사건'(황옥경부폭탄사건)이란 상해 의열단의 독립운동가들이 경기도 경찰부 소속의 조선인 경부 황옥(黃鈺)과 손잡고 국내로 폭탄을 들여오다가 발각된 사건이다.

이렇게 나혜석의 '부영사 부인 노릇'이란 공식적으로는 안동현의 관변 사교계에 참석하는 것이고, 비공식적으로는 국경을 오고 가는 조선사람의 각종 편의를 보아주는 것이었다.

이 당시 여자유학생들은 민족운동에 대한 여성의 참여를 남녀평등의 문제로 이해하고 있었다. 민족독립운동에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이 여성의 인권을 찾고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길이라는 것이다.[112] 나혜석도 페미니스트로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3·1운동의 주도세력이었던 1910년대의 일본 유학생 출신들은 이제 1920년대에는 일제의 문화정치라는 상대적으로 열린 공간에서 일정하게

111 「화가로 어머니로- 나의 10년간 생활」, 『나혜석 전집』, 344~345면

112 김윤주, 「나혜석 문학연구: 작품에 나타난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2001, 15면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이른바 '사회의 지도층'이 된 것이다. 문화정치를 3·1운동의 성과물로 생각하면서 현실에 안주해 가는 기성세대가 되었다. 그리고 1930년대 후반이면 거의 모두 친일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1910년대 계몽운동을 주도했던 일본 유학생 출신의 부르주아 계몽주의자들은 이렇게 민족의 배신자로서 자기 세대의 운명을 드러내었다.

1930년의 이혼, 가족과 사회로부터의 냉대 등은 나혜석을 군국주의로 치달아가는 일제하 조선사회에서 격리시켰고, 이것은 그녀가 자신과 가까웠던 같은 세대의 많은 남성들이 걸려들었던 친일의 덫에 걸려들지 않을 수 있었던[113]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나혜석은 3·1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저항 민족주의 세력에서 활동하였고, 3·1운동 이후에도 부영사 부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독립운동을 후원하였다. 따라서 나혜석은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한 저항 민족주의자인 것이다.

3. 여성적 글쓰기에 대한 자각과 실천

페미니즘 비평은 미국과 프랑스로 양대별 될 정도로 문학을 대하는 접근법이나 비평의 방법론, 그리고 지적인 전통에서 커다란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중 프랑스 페미니즘 비평은 정신분석적 경향과 해체론적 언어분석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데 특히 데리다(Derrida)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 엘렌 식수

113 이상경, 앞의 책, 480면

스(Helene Cixous), 루스 이리가레이(Luce Irigaray) 등 프랑스의 대표적 페미니즘 이론가들이 데리다의 해체주의를 페미니즘 이론의 모형으로 삼게 된다.[114] 이들은 여성의 육체와 여성의 성적 특성에 기초한 '여성적 글쓰기(ecriture feminine)'를 주장한다.

여성적 글쓰기는 여성의 삶에 형식을 부여함으로써 주체적이고 독자적인 세계를 창조하며,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자아 정체성을 구성하는 언술 행위를 말한다. 때문에 여성적 글쓰기는 여성 텍스트(woman-text)의 개념을 토대로 하면서 여성 고유의 특성이나 잠재력의 영역을 탐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려 온 이성이나 남근 중심의 사회·문화적 구조를 변화시키는 사고의 출발점이자 변화 가능성을 나타내는 개념도 된다.[115] 이 중 엘렌 식수스가 주장하는 '여성적 글쓰기'는 다음과 같다.

> 여성은 자기 자신을 글로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여성은 여성에 관해서 써야 하며, 여성을 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여성은 지금까지 자신의 신체와 마찬가지로 글쓰기로부터도 심히 내팽개쳐져 왔다…… 여성은 스스로의 힘에 의해 자신을-세계와 역사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텍스트로 만들어야 한다.[116]

길버트와 구바는 함께 쓴 『다락방의 미친 여자』에서 여성작가가 문학작품을 창조하려고 하는 것 자체를 여성의 창조성을 아이 낳기로 제한

---

114 송명희, 한국비평문학회, 「한국과 프랑스의 여성주의 문학의 비교연구」, 『비평문학』 제14호, 한국문화사, 2000, 425면

115 김미현, 『한국여성소설과 페미니즘』, 신구문화사, 1996, 34~35면

116 Helene Cixous, "The Laughter of Medusa," Elaine Marks & Isablle Courtrivon, eds. New French Feminismus (Brighton: Harvester, 1980), p.245. 이경순,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외국문학』 제31호, 열음사, 1992년 여름, 78면에서 재인용.

해온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대한 도전이라고 본다.

나혜석은 여성해방 문학에 대한 자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글쓰기 방식을 통해 그것을 실천했다. 나혜석이 소설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비평적 에세이를 통해 여성의 경험을 글로 쓰는 행위는 일차적으로 여성 독자를 향한 것이며, 여성의 고유한 경험을 공론화하고 공유함으로써 여성의 문제를 좀더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임을 주장하는데, 나혜석의 이런 여성적 글쓰기는 여성의 주체성 주장, 남녀차별비판, 모성체험의 허구성 비판, 이혼체험의 남성중심성 비판이란 특징을 갖는다.

1914년 12월에 발간된 『학지광』 제3호에 나혜석은 최초의 글 「이상적 부인」을 발표한다. 「이상적 부인」에서 나혜석은 과거와 현재를 통하여 이상적 부인이라고 할 만한 여성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습관에 따라 세속적 본분인 현모양처로 이상을 정할 것이 아니니 현모양처를 내세우는 것은 교육가들이 상업적으로 내세우는 것에 불과하며 온양유순이란 것도 여자를 노예로 만들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나혜석이 생각하는 이상적 부인이란 상식이 있고 개성을 발휘하겠다는 자각을 가진 여성이었다.

1917년 나혜석은 『학지광』에 「잡감」이란 제목으로 두 편의 글을 발표했다. 「잡감」(1917. 3)에서 나혜석은 편지 글 형식으로 좀더 구체적인 여성해방론을 펼쳤다. 이 두 글에서 나혜석의 주장의 핵심은 '여성도 사람이다' 혹은 '여성도 사람다워야 한다'는 데에 있다. 그때까지 여성에 강요되어온 '미덕'은 허구이며, 오히려 비난을 감수하면서 목적의식적으로 그런 미덕을 거스르고 나아가는 것이 여성의 임무임을 힘주어 강조한 이 글은, 그 전에 막연하게 '이상적 부인'상을 말했던 것과 달리 여자유학생으로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각오를 내보인 것이다.

「잡감-K언니에게 여(與)함」(1917. 7)에서 나혜석은 조선여성의 선각

자는 여자가 너무 설친다는 욕을 두려워하거나 여자답게 안존한다는 칭찬을 듣고 싶어서, 여성이 해야 할 사업을 못해서는 안된다고 한번 더 강조하고, 좀더 구체적으로 서구의 역사와 예를 들어가며 여성도 사람이 될 것을 주장한다.[117] 지금까지의 문학작품 속에서 그려져 왔던 의존적이고 나약하며 소극적인, 주체의식이 결여된 여성상과는 달리 나혜석은 여성에게 주어진 열악한 사회적 환경과 조건들을 극복하고 스스로의 주체성을 자각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모된 감상기」(1923. 1. 1~21)에서 나혜석은 여성으로서의 경험을 근거로 모성의 신화를 부정하고 전통적인 '남존여비(男尊女卑)'와 '효(孝)'의 관념까지 비판하는 대담성을 보여준다.[118] 그녀는 남존여비에 대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솟아오르는 정이라고들 한다. 그러면 아들이나 딸이나 평등으로 사랑할 것이다. 어찌하여 한 부모의 자식에게 대하여 출생시부터 사랑의 차별이 생기고, 조건이 생기고 요구가 생길까. 아들이니 귀엽고 딸이니 천하며, 여자보다 남자를, 약자보다 강자를, 패자(敗者)보다 우자(優者)를…… 딸은 무식하더라도 아들은 박식하여야만 말년에 호강을 볼 수 있는 것이라 하였다."[119]하는 점을 들어 남녀차별에 대해 비판한다. 또 '자식은 모체의 살점을 떼어가는 악마'라고 하여 '모성의 신화'를 부정하였다. 이것은 본능적인 것으로 신비화된 모성을 부정한 글로 한국의 여성해방론에서 획기적인 글이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임신부터 시작되는 '어머니 되기'가 행복이 아니라 공포라는 것, 피하고 싶은 장애물이라는 것을 솔직히 토로하

---

117 이상경, 「가부장제에 맞선 외로운 투쟁」, 『역사비평』, 1995 겨울호, 325~326면

118 김윤주, 「나혜석 문학연구- 작품에 나타난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71면

119 「모된 감상기」, 『나혜석 전집』, 231~232면

고, 또 분만시의 엄청난 육체적 고통을 시를 통해 솔직히 표현하여 여성의 육체에 대한 논의를 기피하는 금기를 깨뜨린 것이다. 여성의 어머니 되기의 경험을 함께 하지 못했고, 재래의 신비화된 모성에 대한 고루한 관념을 가진 남성은 이해할 수 없는 여성으로서의 곤혹스러움과 고통, 그런 여성의 경험을 공론화시켜 여성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욕망과 책무감에서 글을 쓴다고 밝힘으로써 글쓰기에 대한 여성적 자의식을 나타냈다.

나혜석은 여자로 태어나면 당연히 시집가서 아이 낳고, 출산의 고통도 모성애 덕에 견딜 수 있고, 절대적인 모성애에 의해 온갖 어려움을 감수하며 그 아이를 기르는 것이 여자이며 어머니 된 자의 의무이며 본능이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생각들에 대한 의문과 부정, 나혜석은 그것을 드러내었다.

임신, 출산의 고통이 여성의 목소리로 생생하게 표현된 것은 나혜석이 처음일 것이며 이것은 또한 여성의 육체에 대한 논의를 기피하는 금기를 깨뜨린 것이었다. 이런 파격적인 주장은 당연히 시비를 불러일으켜 백결생이란 남성과 논쟁을 벌이게 되었다. 백결생의 비판에 대해 나혜석은 곧바로 「백결생에게 답함」[120]이라는 반박문을 쓴다. 반박의 핵심은 자기가 쓴 글은 여성 고유의 경험을 여성독자를 향해 토로하는 '여성적 글쓰기'라는 점이다. 남성은 아예 독자로 상정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나혜석이 아직 의식적인 여성문학론을 내어놓은 것은 아니지만 여성의 경험은 여성 자신에 의해 토로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여성들의 글쓰기를 적극 주장하고 또한 실천했다. 나혜석의 여성적 글쓰기의 주장은 당시 사회의 금기를 넘어서는 일이었다.[121]

---

120 『동명』, 1923. 3. 18면

121 이상경, 「한국여성문학론의 역사와 이론」, 『여성문학연구 창간호』, 한국여성문학

이후에도 계속 나혜석은 결혼생활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부처간의 문답」(1923. 11)이라든지 「내가 어린애 기른 경험」(1926. 1. 3)같은 글을 발표했고 이혼 후에는 「화가로 어머니로-나의 10년간 생활」(1933. 1), 「이혼 고백장」(1934. 8~9) 같은 자신의 심정과 생활을 매우 솔직하게 드러내는 글들을 발표했다. 특히 김우영과 이혼(1930)하고 난 뒤에 둘이 연애할 때로부터 시작하여 행복한 결혼생활과 구미 여행을 거쳐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심경을 솔직하게 쓴 「이혼 고백장」은 당시 사회에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나혜석의 이런 행동을 '노출증적 광태'라고까지 비난했다.

남성과의 대결의식 혹은 자존의식은「이혼 고백장」에서 극치를 이루게 된다.[122] 1934년『삼천리』잡지에 연재한 이 고백문은 여자가 이혼당한 것만도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분위기에서 한술 더 떠서 자신이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김우영이 보인 편협함과 남성이기주의를 상세하게 묘사한 것으로 개인의 내밀한 문제로 치부해 두려고 하는 가정생활과 성의 문제를 공개적인 논의의 장으로 끌어낸 것이다.[123] 「이혼 고백장」은 그녀를 파멸시킨 것이 김우영이라기보다는 남성위주의 사회제도, 그들에게만 유리한 법률 그리고 여권 부재의 사회인습이었음을 말하고 있다.[124]

「이혼 고백장」과 그 뒤를 이은 최린을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 사건인 「최린 제소장」(1934. 9. 20)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혜택받는 입

학회, 1999, 14~17면

122 윤범모, 「나혜석 예술세계의 원형탐구」, 나혜석기념사업회, 『나혜석 바로알기 제3회 심포지엄』, 2000.1.15, 59면

123 이상경, 앞의 논문, 336~337면

124 박명숙, 「나혜석 작품에 나타난 사상 연구」,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24면

장에서의 엘리트 여성의 관념적 여성해방론을 극복하고, 구체적 현실적인 가부장적 사회제도와 남성의 의식에 도전했던 것'[125]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컸다.

나혜석이 최린을 왜 제소할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에 관해서는 나혜석의 글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이혼당한 나혜석만 사회에서 배척받고 '영웅호색' 운운하는 조선사회의 통념으로 최린의 명망은 전혀 상처받지 않았다. 오히려 나혜석이 최린의 화려한 경력에 훈장 하나만 더 얹어준 꼴이 되었다. 피차간에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과 유부녀로 만나 연애를 한 것인데, 조선에 돌아오니 비난은 나혜석만 받고, 나혜석만 이혼에까지 몰려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결과 나혜석은 자신과 최린 사이의 불균형, 조선사회의 왜곡된 정조 관념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택했을 것이다.

나혜석은 지속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글쓰기를 하게 된다. 「신생활에 들면서」(1935. 2), 「이성간의 우정론」(1935. 6)처럼 이혼한 여성의 입장을 드러내는 글들을 쓴다. 그 추동력은 여성의 체험, 특히 여성이라면 대부분 경험하게 되지만 남성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고유의 경험을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적인 논의의 장으로 끌어내는 것이었다. 또한 이혼 후에 발표한 글들은 여성들이 그 동안 아무 말 않고 순응해온 가족제도와 법률, 사회적 관습이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억압적임을 고발하고 폭로하는 그 동안의 침묵을 깨뜨리는 도전인 것이었다.[126]

---

125 井上和枝, 「나혜석의 여성해방론의 특성과 역사적 의의」, 『여성문학연구』 1, 368면

126 이상경, 『인간으로 살고 싶다-영원한 신여성 나혜석』, 한길사, 2000, 240면

> 버니지아 울프(Virginia Woolf)는 여성이 아이 낳는 도구나 남성 섹슈얼리티의 수동적 대상이 아닌 '주체'로 서려면 남성과 동등한 교육적, 경제적 평등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필요함을 분명하게 인식한다.[127]

나혜석은 어렸을 때부터 부유한 집안에서 성장하였다. 때문에 사회적 기반이 필요함을 인식하지 못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모르고 성장한 나혜석이니 만큼 돈이 인간의 삶을 얼마나 강하게 지배하는지를 경험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해 철저하지 못했다. 돈의 힘을 몰랐기에 여성의 자아각성을 주장하면서도 경제적 독립이 여성의 지위와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의 조선사회가 그랬기 때문에 나혜석 혼자만의 잘못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나혜석은 임신, 출산의 고통을 여성의 목소리로 생생하게 표현한 최초의 여성이며, 여성의 경험은 여성 자신에 의해 토로해야 된다는 여성적 글쓰기가 우리나라에 소개되기 전에 이미 여성적 글쓰기를 하고 있었던 선구자요 선각자였다. 그러므로 나혜석은 저항 민족주의자이며 페미니스트이므로 저항적인 탈식민주의 페미니스트인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부르주아 계층적 한계와 당대 사회가 가지는 가부장제라는 시대적 한계를 뛰어넘지는 못하였다.

---

127 태혜숙, 앞의 책, 16~17면

III. 「경희」에 나타난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나혜석은 1918년에 도쿄여자 친목회가 낸 『여자계』에 구여성을 설득하여 신여성의 각성된 삶의 방식에 동의하게 만드는 실천적 삶을 그린 단편소설 「경희」를 발표했다. 같은 시기 남성 작가의 많은 작품은 자신의 선택에 의한 자유연애와 부모로부터 강요된 조혼 사이에서 갈등하는 청춘 남녀의 연애담이 주를 이루고 있었고 그 갈등의 해결은 절망적인 현실 도피거나 관념적 초월이었을 뿐 현실의 벽에 진지하게 대면한 경우는 드물었다. 이에 비한다면 「경희」는 문제 제기와 갈등 해결의 현실성과 인물 묘사의 생생함에서 1910년대 단편소설 중 가장 우수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128]

1910년대 소설 중 교육받은 지식인 여성이 현실에 고뇌하면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어쩌다가 등장한다고 해도 겉모습은 근대적 교육을 받은 신여성이지만 대개 허영에 젖어 있고 성적 방종만 누리면서 진정한 주체성에는 관심이 없는 인형 같은 모습이다. 허위의식, 사이비 근대의식 같은 부정적 측면만 부각되어 있을 뿐 그 여성들의 내면으로 들어가 그들의 갈등과 좌절, 그리고 진지한 자아실현의 모색과정을 묘사한 작품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런데 나혜석은 일찌감치 신여성에 대한 이런 비난을 염두에 두고 이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자각한 신여성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128 「나혜석-인간으로 살고 싶었던 여성」, 『나혜석 전집』, 20면

「경희」에서 진지하게 모색했다.

봉건적인 인습은, 여성의 적은, 아버지로 대표되는 완고한 남성뿐만 아니라 봉건적 관념에 찌든 여성들 속에도 있다. 그리고 소설은 섣불리 남성들에게 비난과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구여성들의 신여성에 대한 적대감과 오해, 의식에서 앞서가는 신여성이 자칫 범하기 쉬운 관념적 선진성을 비판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129] 그것도 간접 설득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경희」는 200자 원고지로 125장 분량의 단편소설로, 1917년 11월 『청춘』지 현상문예에 당선하여 한국 최초의 여성소설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김명순의 「의심의 소녀」가 표절작이라는 판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최초의 여성소설이라 할 수 있는 작품이다. 동경 유학 중 방학을 맞아 집에 돌아온 여주인공 경희가 주위의 여러 가부장제적 사고방식의 인물들과 부딪치며 갈등하나, 모범적이고 적극적인 실천성으로 신여성에 대한 편견을 차례차례 불식시키고 신여성의 당위성을 깨닫게 하는 과정을 그린다.[130]

결혼을 강권 받는 실제상황은 소설 「경희」의 창작 동기로 작용한 듯하다. 왜냐하면 작품의 내용에서 볼 때, 「경희」는 나혜석의 자전적 요소가 강하게 반영된 소설로 읽혀지기 때문이다. 자전적 요소로서 먼저 주인공 경희의 아버지가 철원군수를 지냈다고 설정된 점, 아들의 권유로 일본에 경희를 유학 보냈다고 설정된 외적 조건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실제 나혜석의 부친은 경기도 시흥군수, 용인군수를 역임했고, 나혜석의 동경유학은 이미 일본 중국 등지에 유학했던 오빠들의 권유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이 작품이 나혜석의 자전적 요소를 반영했

---

129 이상경, 앞의 책, 156~157면

130 한국여성소설연구회, 앞의 책, 92~93면

다는 점은 작품이 쓰여진 1918년의 나혜석이 처한 상황에서 유추할 수 있다. 1913년에 동경에 건너간 나혜석은 학문 탐구뿐만 아니라 선각자적 정신으로 새로운 문물을 터득하여 유학생들 가운데서도 선두에 서서 활약했다. 그런데 결혼까지 약속했던 최승구가 갑자기 사망함에 따라 실의에 빠졌고, 경성제대 법과 출신의 김우영이 접근하여 결혼을 신청하자 집안에서는 그가 첫 부인과 사별한 처지라는 데 반대하고 중매결혼을 강권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131]

이런 창작 배경을 가진 「경희」는 동경유학생인 주인공 경희가 아버지로부터 결혼을 종용받지만 이에 승복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주체성과 자각을 이룬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경희」는 여성의 교육과 주체성은 강조했으나, 신여성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킨다는 차원에서 지나치게 성역할 분담론에 토대한 현모양처론을 벗어나지 못하는 타협적 성격과 가사노동의 가치론을 강조했다. 당시 남성, 여성들 모두 신여성에 대한 올바른 면을 보지 못하고 신여성은 '가사노동을 못한다, 신교육을 받으면 여자를 버린다, 여자는 배워야 쓸데가 없다……' 등의 편견으로 신여성의 인간적 자각과 주체성의 확립, 여성의 교육을 억압하려는 사회 분위기가 만연해 있던 때이었다. 이러한 억압적 분위기를 극복하고자 경희는 사돈마님을 설득하는가 하면, 아버지를 설득하고, 그 자신의 인간적 자각이란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내면의식의 확고한 자각이 있어야만 한다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따라서 「경희」의 신여성에 대한 억압 중 전통적 가부장제의 억압에는 저항했지만 일본 제국주의의 피식민지 여성에 대한 억압은 식민지 현모양처론 내에서 사고하는 면모를 보이고 있어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의

131 송명희, 『이광수의 민족주의와 페미니즘』, 국학자료원, 1997, 319~321면

논의를 가능케 하고 있는 것이다.

1. 가부장제 여성으로서 본 「경희」

1) 여성 교육의 필요성 인식

나혜석은 「경희」를 통해 세간에 떠돌던 신여성에 대한 온갖 험담을 말끔히 불식시키는 이상적인 신여성상을 형상화해 보여 준다. 경희는 바느질, 빨래, 밥하기, 김치 담그기는 물론이요, 하녀 시월이의 몫인 풀쑤기까지 도와줌으로써 신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말끔히 걷어낸다.[132] 그럼 「경희」에서 신여성의 부정적 인식을 걷어내기 위해 여성교육에 대해 가진 나혜석의 가치관을 살펴보자.

가부장제의 문제는 서술의 문제로, 경희모, 사둔, 수남모 등의 삶에서 보다 두드러지며, 이들의 여학생에 대한 편견(남자와 똑같이 신교육을 받아 무엇하느냐는 차별의식), 여자는 결혼하여야 한다는 의식, 신교육을 받아도 가사노동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의식 등에 두루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의 가부장적 가치의식은 다분히 봉건적 가치의식으로 봉건적 의식과 근대의식의 대립으로 나타난다. 조선시대 봉건적 여성관은 '부부유별관(夫婦有別觀)'이다. 이 부부유별관은 '내외관(內外觀)'과 '유교적 부도(婦道)'로 되어 있다.

---

132 김복순, 앞의 책, 104~105면

내외관은 부부유별관에 입각하여 남녀의 일체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범화한 것이다. 이것은 남녀에게 천부적으로 주어진 자리, 즉 그들의 사회적 위치를 내외(內外)로 설정하고, 남자를 문밖, 여자를 문안으로 생활영역을 고정화시킨다.

따라서 여자는 유순과 순종의 기질형성, 내업(內業)의 수행능력 습득, 남자와의 접촉을 피하는 일체의 행동지침으로 교육되었다. 즉 말의 수다스러움을 금하고, 될수록 말을 사양하도록 가르치며 윗사람에게 말대답 안하는 것이 말조심의 으뜸이라 하여, 꼭 필요한 대답 외에는 말을 안하는 것을 종용하였다.[133]

「경희」에서 사돈마님은 '곱게 입고 앉았다가 부잣집으로 시집가서 아들딸 낳고 재미드랍게 사'는 것을 여성의 행복으로 아는 가부장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사내도 배워가지고 쓸데가 없'는데 하물며 계집애를 남자와 똑같이 신교육을 시켜 무엇하느냐는 가부장제 여성이 가지는 성차별의식을 보이고 있다. 사돈마님의 신여성에 대한 편견은 첫째, 신여성은 가사노동을 못한다. 둘째, 신교육을 받으면 여자를 버린다. 셋째, 배워야 쓸데가 없다는 성차별적 의식이다.

"거기를 또 가니? 인제 고만 곱게 입고 앉았다가 부잣집으로 시집가서 아들딸 낳고 재미드랍게 살지 그렇게 고생할 것 무엇 있니?"

아직 알지 못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일러주는 것같이 경희에 대하여 말을 하다가 마주 앉은 경희 어머니에게 눈을 향하여 '그렇지 않소. 내 말이 옳지요' 하는 것 같았다.

"네, 하던 공부 마칠 때까지 가야지요."

"그것은 그리 많이 해 무엇하니. 사내니 고을을 간단 말이냐? 군주

133 한명숙, 「조선시대 유교적 여성관의 원리론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35~38면

사(郡主事)라도 한단 말이냐? 지금 세상에 사내도 배워가지고 쓸 데가 없어서 쩔쩔 매는데...."

이 마님은 여간 걱정스러워 아니 한다.[134]

다음은 사돈마님의 여학생에 대한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준다. 사돈마님의 신여성에 대한 편견은 가사노동과 경제적 측면에서 신여성이 전통여성에 비해 우월하기 때문에 편견이 깨뜨려진다. 이 편견을 깨뜨리는 것은 경희의 집에 와서 본 가사노동에 솔선수범하는 경희의 행동과 경희모의 말(설득)에 의해서이다. 사돈마님은 '처음에는 물론 거짓말로 들을 뿐만 아니라, 속으로 너는 아마 큰 계집애를 버려놓고 인제 시집 보낼 것이 걱정이니까 저렇게 없는 칭찬을 하나보구나 하며' 의심하지만 '감독이 왔더란 말이며, 존대를 하더란 것이며, 사내도 여간한 군주사(郡主事)쯤은 바랄 수도 없는 월급을 이천 냥까지 주겠더란 말'과 여학생인 경희가 직접 만든 '벽에 걸린 수(繡)도 확실히 자기 눈으로 볼 뿐 아니라 쉴새없이 바퀴 구르는 재봉틀소리가 당장 자기 귀에 들'림으로써 '양심은 스스로 자복(自服)하여' 여학생에 대한 편견이 사라진다. 이것은 사돈마님이 가지고 있는 가부장제 가치관인 '일 잘하는 여성'에 경희가 부합되기 때문이며, 더구나 남자도 받기 어려운 돈을 받는 경제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사돈마님은 반신반의로 어떻든 끝까지 들었다. 처음에는 물론 거짓말로 들을 뿐만 아니라, 속으로 '너는 아마 큰 계집애를 버려놓고 인제 시집 보낼 것이 걱정이니까 저렇게 없는 칭찬을 하나보구나'하며 이야기하는 김 부인의 눈이며 입을 노려보고 앉았다. 그러나 이야기

134 「경희」, 『나혜석 전집』, 82면

가 점점 길어갈수록 그럴 듯하다. 더구나 감독이 왔더란 말이며, 존대를 하더란 것이며, 사내도 여간한 군주사(郡主事)쯤은 바랄 수도 없는 월급을 이천 냥까지 주겠더란 말을 들을 때는 설마 저렇게까지 거짓말을 할까 하는 생각이 난다. 사돈마님은 아직도 참말로는 알고 싶지 않으나 어쩐지 김 부인의 말이 거짓말 같지는 아니하다. 또 벽에 걸린 수(繡)도 확실히 자기 눈으로 볼 뿐 아니라 쉴새없이 바퀴 구르는 재봉틀소리가 당장 자기 귀에 들린다. 마님 마음은 도무지 이상하다. 무슨 큰 실패나 한 것도 같다. 양심은 스스로 자복(自服)하였다. '내가 여학생을 잘못 알아 왔다. 정말 이 집 딸과 같이 계집애도 공부를 시켜야겠다. 어서 우리집에 가서 내외시키던 손녀딸들을 내일부터 학교에 보내야겠다'고 꼭 결심을 했다.[135]

이처럼 사돈마님은 경희 또는 경희 모와는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데, 즉 여자는 시집가는 것이 최고라는 구시대적 가치관의 소유자로서 경희나 경희 모와의 가치관의 갈등을 빚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신구의 가치관의 차이는 후반으로 갈수록 신가치관의 일방적 승리로, 사돈마님에 대한 경희 어머니의 설득이 주효하여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여성의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다. 사돈마님의 '내가 여학생을 잘못 알아 왔다. 정말 이 집 딸과 같이 계집애도 공부를 시켜야겠다. 어서 우리집에 가서 내외시키던 손녀딸들을 내일부터 학교에 보내야겠다고 꼭 결심을 했다.'처럼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 신가치관인 여성의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희의 부지런한 외적 행동의 관찰과 경희 모의 내적 서술에 의하여 독자에게 치밀하게 설득시킨[136] 것이다.

---

135 「경희」, 『나혜석 전집』, 86면

136 송명희, 『이광수의 민족주의와 페미니즘』, 국학자료원, 1997, 322~323면

"똑 시집살이한 손 같고나. 여학생들 손은 비단결 같다는데 네 손은 왜 이러냐."

"살성이 곱지 못해서 그래요."

경희는 고개를 칙으린다.

"제 손으로 빨래해 입고 밥까지 해 먹었다니까 그렇지요."

경희의 어머니는 담배를 다시 붙이며 말을 한다.

"저런, 그러면 집에서도 아니하던 것을 객지에 가서 하는구나. 네 일본학교 규칙은 그러냐?"

사돈마님은 깜짝 놀랐다. 경희는 아무 말 아니한다.

"무얼요. 제가 제 고생을 사느라고 그러지요. 그것 누가 시키면 하겠습니까. 학비도 넉넉히 보내주지마는 그 애는 별나게 바쁜 것이 재미라고 한답니다."

김 부인은 아무 뜻 없이 어제 저녁에 자리 속에서 딸에게 들은 이야기를 한다.[137]

경희는 여학생들의 손은 비단결 같다는데 네 손은 왜 그렇지 않은가를 묻는 사돈마님의 질문에 '경희는 고개를 칙으리'거나, 경희 어머니(김부인)가 대신 대답하게 한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거나 침묵을 유지하고 경희의 할 말은 경희 어머니가 대신한다. 이 장에서 우선 경희는 거의 말을 하지 않는다. 그녀의 할 말은 그녀의 어머니가 대변하되, 그것도 일방적인 신여성의 장점 나열이 아니라 '제 손으로 빨래해 입고 밥까지 해 먹었다니까 그렇지요.'처럼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경희의 생활태도를 들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경희의 부지런한 외면적 모습이 사돈마님과 독자에게 제시된다. 말로 설득하지 않고 행동으로 독자를 설득한 것이다.

---

137 「경희」, 『나혜석 전집』, 81면

만일 서술자의 목소리가 약화되었다 해도 작가적 주인공인 경희의 목소리를 빌리는 일차적인 우회방식을 취했더라면, 작가의 계몽적 의도가 두드러져 이 소설의 작품성은 훨씬 감소했을 것이다. '무얼요. 제가 제 고생을 사느라고 그러지요. 그것 누가 시키면 하겠습니까. 학비도 넉넉히 보내주지마는 그 애는 별나게 바쁜 것이 재미라고 한답니다.'에서 볼 수 있듯이 경희를 대변하는 어머니의 설정과 같은 이차적인 우회방식의 채택으로 될수록 말을 사양하도록 가르치며 윗사람에게 말대답 안하는 것이 말조심의 으뜸이라 하여, 꼭 필요한 대답 외에는 말을 안하는 것을 종용하던 가부장제의 여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138]는 것이다.

> '먹고 입고만 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배우고 알아야 사람이에요. 당신댁처럼 영감 아들 간에 첩이 넷이나 있는 것도 배우지 못한 까닭이고 그것으로 속을 썩이는 당신도 알지 못한 죄이에요. 그러니까 여편네가 시집가서 시앗을 보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가르쳐야 하고 여편네 두고 첩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도 가르쳐야만 합니다' 하고 싶었었다. 이외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설명도 하고 싶었었다. 그러나 이 마님 입에서는 반드시 오늘 아침에 다녀가신 할머니의 말씀과 같은 "얘, 옛날에는 여편네가 배우지 않아도 수부다남(壽富多男)하고 잘만 살아왔다. 여편네는 동서남북도 몰라야 복(福)이 많단다. 얘, 공부한 여학생들도 보리방아만 찧게 되더라. 사내가 첩 하나도 둘 줄 모르면 그것이 사내냐?" 하던 말씀과 같이 꼭 이 마님도 할 줄 알았다. 경희는 쇠귀에 경을 읽지 하고 제 입만 아프고 저만 오늘 저녁에 또 이 생각으로 잠을 못 자게 될 것을 생각하였다. 또 말만 시작하게 되면 답답하여서 속이 불과 같이 탈 것, 자연 오랫동안 되면 뒷마루에서는 기다릴 것을 생각하여 차라리 일절 입을 다물었다.[139]

---

138 한국여성소설연구회, 앞의 책, 94~95면

'경희는 쇠귀에 경을 읽지 하고 제 입만 아프고 저만 오늘 저녁에 또 이 생각으로 잠을 못 자게 될 것을 생각하였다. 또 말만 시작하게 되면 답답하여서 속이 불과 같이 탈 것, 자연 오랫동안 되면 뒷마루에서는 기다릴 것을 생각하여 차라리 일절 입을 다물었다.'와 같이 말로 설득하지 않고 행동으로 독자를 설득한다.

신여성을 새로운 여성집단으로 구별화 하면서, 시대를 이해하고 사회물정을 알고 창조적 정신이 있는 '지의 아름다움'이 있다[140]고 하면서도 구여성과 달리 살림에는 무관심하고 시부모도 잘 모시지 못하여 사치스럽고 낭비가 심한 여성으로 인식하는 배면(背面)에는 새로운 근대적 가부장제의 시선이 스며 있다. 이러한 시선 속에서 심지어는 "소위 학문 있는 여인들이 가정 본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또 "현대형의 인텔리 여성"은 "종래의 여성"과 대비하여 권장할 만한 것이 없다는 주장까지 나오게 된다.[141] 이들은 신여성들이 한편으로는 새로운 근대적 자아를 보이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정을 등한시하고 남편의 경제력에 의존하여 물질적으로 탐닉하는 생활에 안주하는 이중적, 근대적 여성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한다.[142] 당시 신여성들을 흠모하고 선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을 천박한 사이비 신여성으로 몰아부칠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던 이러한 남성들의 언술에는 남성의 시각에서 보아온 여성 이미지와, 구여성에 의해 중층적으로 비교되어진 신여성 이미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

139 「경희」, 『나혜석 전집』, 82~83면

140 함상훈, 「조선가정 생활 제도의 검토」, 『여성』, 1938.8.

141 윤규섭, 「현대 여성의 위치」, 『여성』, 1940.10, 29면

142 함대훈, 「조선 신여성론」, 『여성』, 1937.2.
홍종인, 「결혼에 나타난 신여성」, 『여성』, 1937.2

「경희」가 구여성들이 가진 신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거둬 내려고 애쓰는 노력들은 분명 가부장제가 유포한 여성의 성역할 분담론에 빚지고 있다. 그것은 확실히 남성의 시선이다. 왜냐하면 경희가 신여성의 역할이라고 자각하며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이란 바느질과 청소, 요리 등으로 이것은 남녀의 역할 분담론에 토대하여 신여성은 여성의 역할을 근대교육으로 인해 더 잘 수행할 수 있다고 본 것이기 때문이다. 이 소설에서 바람직한 여성교육이란 바느질, 청소, 요리 등을 잘 하는 것 이상으로는 제시되지 못했다. 그토록 갈망했던 경희의 신여성 되기의 욕망이란 이렇게 이중적이다. 근대 문물을 섭렵한 신여성이라 해도 구여성과 비교해 별로 나을 것이 없고 유용한 것도 아니라는[143]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신교육이 주부로서의 전통적 역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보다 유능한 가사수행자로서의 역할에 긍정적임을 강조함으로써 신교육에 대한 가치를 역설하고자 하였다.[144] 아버지 이철원과 어머니 김 부인이 나누는 대화에서 경희를 '일본 보내서 버리지는 않은 모양이오?'하며 공부시켜 걱정하더니 '그 전보다 더 부지런해졌어요. 아침이면 제일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루 걸레질이며 마당이며 멀겋게 치워놓지요. 그뿐인가요. 떡하면 떡방아 다 찧도록 체질해 주기……. 그러게 시월이는 좋아서 죽겠다지요…….'와 같이 집안일을 하는 것을 보고 안심하는 데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일본 보내서 버리지는 않은 모양이오?"

"아니오. 그 전보다 더 부지런해졌어요. 아침이면 제일 먼저 일어

143 김복순, 앞의 책, 116~117면

144 송명희, 「이광수의 민족주의와 페미니즘」, 국학자료원, 1997, 327~328면

니다. 조금이라도 남에게 빼앗길 것이 아니다. 아아, 다행이다. 경희의 넙적다리에는 살이 쪘고 팔뚝은 굵다. 경희는 이 살이 다 빠져서 걸을 수가 없을 때까지 팔뚝의 힘이 없어 늘어질 때까지 할 일이 무한하다. 경희가 가질 물건도 무수하다. 그러므로 낮잠을 한 번 자고 나면 그 시간 자리가 완연히 턱이 난다. 종일 일을 하고 나면 경희는 반드시 조금씩 자라난다. 경희의 갖는 것은 하나씩 늘어간다. 경희는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얻기 위하여 자라갈 욕심으로 제 힘껏 일을 한다.147)

'경희는 할 일이 많다. 만일 경희의 친한 동무가 있어서 경희의 할 일 중에 하나라도 해 준다면 비록 그 물건이 경희의 손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경희 것이 아니라 동무의 것이다. 이러므로 경희가 좋은 것을 갖고 싶고 남보다 많이 갖고 싶을진대 경희의 힘으로 능히 할 만한 일은 행여나 털끝 만한 일이라도 남더러 해 달라고 할 것이 아니다.' 이처럼 스스로 주체성을 자각하여 주체적 능동적이 된다. 경희는 주체적 자각을 가질 뿐만 아니라 매우 근면하고 능동적인 인물로 전통적 현모양처상에 배치되지 않으면서도 근대적 인간으로서의 자각을 갖춘 여성상이다.

다음은 모든 사물에 자신의 고유한 명칭과 주체성이 존재하듯이 자신의 사람으로서의 존엄성과 주체성을 깨달음으로써 그녀는 아버지의 결혼 강요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명한 사실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된다. 즉, 갈등상태를 벗어나서 자신의 주체성 실현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

'저것! 저것은 개다. 저것은 꽃이고 저것은 닭이다. 저것은 배나무다. 그리고 저기 매달린 것은 배다. 저 하늘에 뜬 것은 까치다. 저것은 항아

147 「경희」, 『나혜석 전집』, 96~97면

납니다. 그래서 마루 걸레질이며 마당이며 멀쩡게 치워놓지요. 그뿐인가요. 떡하면 떡방아 다 찧도록 채질해 주기……. 그러게 시월이는 좋아서 죽겠다지요……."

김부인은 과연 경희가 일하는 것을 볼 때마다 큰 안심을 점점 찾았다.145)

「경희」는 지식인 여성의 주체성 자각, 남성과 동등한 교육권 보장을 요구하며, 근대적 교육이 결코 여성으로서의 역할(가사노동과 정서적 역할 수행자로서)과 상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하고 있다.146) 그러나 신여성의 가사수행자로서의 긍정적 가치론을 너무 강조하다보니, 가부장적 성역할 분담론에 그만 발목을 잡히고만 격이다.

'경희의 일동일정의 내막에는 자각이 생기고 의식적으로 되는 동시에 외형으로 활동할 일은 때로 많아진다'는 것은 경희가 주체성을 자각함으로 해서 여성으로서의 역할인 가사노동을 스스로 하게 된다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경희의 일동일정(一動一靜)의 내막에는 자각이 생기고 의식적으로 되는 동시에 외형으로 활동할 일은 때로 많아진다. 그래서 경희는 할 일이 많다. 만일 경희의 친한 동무가 있어서 경희의 할 일 중에 하나라도 해 준다면 비록 그 물건이 경희의 손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경희 것이 아니라 동무의 것이다. 이러므로 경희가 좋은 것을 갖고 싶고 남보다 많이 갖고 싶을진대 경희의 힘으로 능히 할 만한 일은 행여나 털끝 만한 일이라도 남더러 해 달라고 할 것이 아

145 「경희」, 『나혜석 전집』, 95면

146 송명희, 「신여성 나혜석의 페미니즘」, 『섹슈얼리티 · 젠더 · 페미니즘』, 푸른사상, 2000, 159면

리고 저것은 절구다. 이렇게 경희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 명칭을 불러본다.'와 같이 모든 사물에 자신의 고유한 명칭과 주체성이 존재하듯이 '그러면 내 명칭은 무엇인가? 사람이지! 꼭 사람이다.'처럼 자신의 사람으로서의 존엄성과 주체성을 깨달음으로써 아버지의 결혼 강요에 대해서 '아아, 대답 잘했다. 아버지가 그리로 시집가면 좋은 옷에 생전 배불리 먹다 죽지 않겠니? 하실 때에 그 무서운 아버지 앞에서 평생 처음으로 벌벌 떨며 대답하였다. 아버지 안자(顔子)의 말씀에도 일단사(一單食)와 일표음(一瓢飮)에 낙역재기중(樂亦在其中)이라는 말씀이 없습니까? 먹고만 살다 죽으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금수(禽獸)이지요.'하며 반대의사를 표명한 사실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된다.

개·꽃·닭·배나무·까치 등 고유한 명칭을 부르면서 자신 스스로도 그러한 고유한 명칭을 가진 존재임을 깨달아 가는 과정을 보여 주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 노력으로 제 밥을 제가 먹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

> 저것! 저것은 개다. 저것은 꽃이고 저것은 닭이다. 저것은 배나무다. 그리고 저기 매달린 것은 배다. 저 하늘에 뜬 것은 까치다. 저것은 항아리고 저것은 절구다.
>
> 이렇게 경희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 명칭을 불러본다. 옆에 놓인 머릿장도 만져본다. 그 위에 개어서 얹은 명주이불도 쓰다듬어 본다. "그러면 내 명칭은 무엇인가? 사람이지! 꼭 사람이다."
>
> 경희는 벽에 걸린 체경(體鏡)에 제 몸을 비추어본다. 입도 벌려보고 눈도 끔쩍여본다. 팔도 들어 보고 다리도 내어놓아 본다. 분명히 사람 모양이다. 그리고 드러누운 탑실개와 굼벵이 찍으러 다니는 닭과 또 까마귀와 저를 비교해 본다. 저것들은 금수, 즉 하등동물이라고 동물학에서 배웠다. 그러나 저와 같이 옷을 입고 말을 하고 걸어 다니고 손으로 일하는 것은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라고 배웠다. 그러

면 저도 이런 귀한 사람이다.

아아, 대답 잘했다. 아버지가 "그리로 시집가면 좋은 옷에 생전 배불리 먹다 죽지 않겠니?" 하실 때에 그 무서운 아버지 앞에서 평생 처음으로 벌벌 떨며 대답하였다. "아버지 안자(顔子)의 말씀에도 일단사(一單食)와 일표음(一瓢飮)에 낙역재기중(樂亦在其中)이라는 말씀이 없습니까? 먹고만 살다 죽으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금수(禽獸)이지요. 보리밥이라도 제 노력으로 제 밥을 제가 먹는 것이 사람인 줄 압니다. 조상이 벌어놓은 밥 그것을 그대로 받은 남편의 그 밥을 또 그대로 얻어먹고 있는 것은 우리집 개나 일반이지요" 하였다. 그렇다. 먹고 죽으면 그것은 하등동물이다.[148]

주인공 경희는 당자의 인품과 재산을 갖춘 대갓집 며느리 위치를 거부한다. 그 거부하는 이유가 '보리밥이라도 제 노력으로 제 밥을 제가 먹는 것이 사람인 줄 압니다. 조상이 벌어놓은 밥 그것을 그대로 받은 남편의 그 밥을 또 그대로 얻어먹고 있는 것은 우리집 개나 일반이지요 하였다. 그렇다. 먹고 죽으면 그것은 하등동물이다.'처럼 신여성의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임을 생각할 때, 경희의 의식수준은 빈곤과 가부장의 억압이라는 이중적 곤경에 처해 있던 당대의 보편적 여성들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부르주아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경희는 부르주아 페미니스트인 것이다.[149]

경희도 사람이다. 그 다음에는 여자다. 그러면 여자라는 것보다 먼저 사람이다. 또 조선 사회의 여자보다 먼저 우주 안 전 인류의 여성이다. 이철원 김 부인의 딸보다 먼저 하나님의 딸이다. 여하튼 두말

148 「경희」, 『나혜석 전집』, 102면

149 한국여성소설연구회, 앞의 책, 99면

할 것 없이 사람의 형상이다. 그 형상은 잠깐 들씌운 가죽뿐 아니라 내장의 구조도 확실히 금수가 아니라 사람이다.[150]

결혼보다는 교육을 선택하고, '그러면 여자라는 것보다 먼저 사람이다. 또 조선 사회의 여자보다 먼저 우주 안 전 인류의 여성이다.'처럼 여자로서보다는 사람으로서의 주체성을 각성해야 한다는 결말, 이것이 바로 이 작품의 주제이며, 나혜석이 당시의 조선여성을 향하여 외치고 싶었던 여성해방의 명제라고 할 수 있다.[151]

따라서 나혜석의 「경희」는 그 자신의 인간적 자각이란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내면의식의 확고한 자각에 의해 주체성이 자각되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경희」는 부덕을 담는 결혼이 아니라 근대교육을 선택하는 결말을 맺고 있다. 즉 신여성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나치게 가부장제 성역할 분담론에 토대하여 여성교육을 설득하고는 있지만 스스로 주체성을 자각하여 여성에게도 근대교육이 꼭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2) 여성 노동의 긍정성 인식

이 작품에서 경희는 바느질 등 살림살이에 신교육을 받지 않은 어떤 여자들보다 능할 뿐만 아니라 노동의 즐거움까지도 향유하는 여성으로 묘사된다.[152] 왜냐하면 그것은 강요된 타율적 노동이 아니라 자발적인

150 「경희」, 『나혜석 전집』, 103면

151 송명희, 『이광수의 민족주의와 페미니즘』, 국학자료원, 1997, 331면

152 송명희, 위의 책, 324면

자율적 노동이기 때문이다. 작품은 많은 분량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경희의 노동의 우월성이 시월이의 노동과 대비된다.

'김 부인은 이번에 경희가 일본서 오면 연년(年年) 세 번씩 목욕을 시켜주던 다락 벽장도 치워주지 아니할 줄만 알았다. 그러나 경희는 여전히 집에 도착하면서 부모님에게 인사 여쭙고는 첫 번으로 다락 벽장을 열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종일 치웠다.' 이처럼 경희는 시종일관 일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일본 여인이 가르치는 재봉틀 바느질 강습소에 다니며 배웠던 솜씨로 조카들의 양복, 모자, 오라비의 여름 양복을 만들고, 김치를 담그고 풀을 쑤며, 벽장을 치운다. 그런데 경희는 '컴컴한 속에서 제 몸을 이리저리 운동케 하는 것이 여간 재미스럽게 생각지 않았다. 일부러 빗자루를 놓고 쥐똥을 집어 냄새도 맡아보았다. 그리고 경희가 종일 일하는 것은 아무 바라는 보수도 없다. 다만 제가 저 할 일을 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다.'처럼 그 일을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로 즐겁게 하는 것이다.

> 김 부인은 이번에 경희가 일본서 오면 연년(年年) 세 번씩 목욕을 시켜주던 다락 벽장도 치워주지 아니할 줄만 알았다. 그러나 경희는 여전히 집에 도착하면서 부모님에게 인사 여쭙고는 첫 번으로 다락 벽장을 열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종일 치웠다.
>
> 그런데 이번 경희의 소제(掃除) 방법은 전과는 전혀 다르다. 전에 경희의 소제방법은 기계적이었다. 동쪽에 놓았던 제기며 서쪽 벽에 걸린 표주박을 쓸고 문질러서는 그 놓았던 자리에 그대로 놓을 줄만 알았다. 그래서 있던 거미줄만 없고 쌓였던 먼지만 털면 이것이 소제인 줄만 알았다. 그러나 이번 소제방법은 다르다. 건조적(建造的)이고 응용적이다. 가정학에서 배운 질서, 위생학에서 배운 정리, 또 도화(圖畵) 시간에 배운 색과 색의 조화, 음악 시간에 배운 장단의 음률

을 이용하여, 지금까지의 위치를 전혀 뜯어 고치게 된다. 자기(磁器)를 도기(陶器) 옆에다도 놓아보고 칠첩 반상을 칠기(漆器)에도 담아 본다. 주발 밑에는 주발보다 큰 사발을 받쳐도 본다. 흰 은쟁반 위로 노르스름한 전골 방아치도 늘어 본다. 큰 항아리 다음에는 병(甁)을 놓는다. 그리고 전에는 컴컴한 다락 속에서 먼지 냄새에 눈살도 찌푸렸을 뿐 아니라 종일 땀을 흘리고 소제하는 것은 가족에게 들을 칭찬의 보수를 받으려 함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것도 다르다. 경희는 컴컴한 속에서 제 몸을 이리저리 운동케 하는 것이 여간 재미스럽게 생각지 않았다. 일부러 빗자루를 놓고 쥐똥을 집어 냄새도 맡아 보았다. 그리고 경희가 종일 일하는 것은 아무 바라는 보수도 없다. 다만 제가 저 할 일을 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다.153)

근대 단편소설 형성기에 획기적 성과를 보여 준 나혜석의 「경희」는 이처럼 가사노동의 묘사가 주를 이루다시피 한 단편소설이다.

주인공의 가정에서 여성은 모두가 일을 하고 있다. 주인공과 오라범댁 그리고 어멈 시월이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 우리는 소설 「경희」에서 다음 몇 가지 정보를 읽을 수 있다. 첫째, 일본 동경으로 유학을 가서 손수 밥 짓고 빨래하여 손이 거칠어진 것을 안타까워하는 사돈마님의 모습에서 경희가 일하지 않아도 되는 계층임을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경희는 일을 하고 있고 사돈마님과 경희의 부모는 감탄하며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애기가 바느질을 다 해요? 네, 바느질도 곧잘 해요. 남정의 윗옷은 못하지요마는 제 옷은 꿰매어 입지요. 아이구 저런, 어느 틈에 바느질을 다 배웠어요.'에서 경희가 일하지 않아도 되는 계층임을 알 수 있는데, '경희와 같이 서울로 일본으로 쏘다니며 공부한다 하고 덜렁하고 똑 사내 같은 학생이 제 옷을 꿰매어 입는다는 말에 놀랐다.'처럼 경희는

153 「경희」, 『나혜석 전집』, 96면

일을 하고 있고 사돈마님과 경희의 부모는 감탄하며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애기가 바느질을 다 해요?"

"네, 바느질도 곧잘 해요. 남정의 윗옷은 못하지요마는 제 옷은 꿰매어 입지요."

"아이구 저런, 어느 틈에 바느질을 다 배웠어요. 양복 속적삼을 다 해요. 학생도 바느질을 다 하나요."

이 마님은 과연 여학생은 바늘을 쥘 줄도 모르는 줄 알았다. 더구나 경희와 같이 서울로 일본으로 쏘다니며 공부한다 하고 덜렁하고 똑 사내 같은 학생이 제 옷을 꿰매어 입는다는 말에 놀랐다. 그러나 역시 속으로는 그 바느질꼴이 오죽할까 하였다. 김부인은 딸의 칭찬 같으나 묻는 말에 마지못하여 대답한다.[154]

둘째, 당시의 공부하는 여학생들은 사회적으로 평판이 매우 나빴는데, 그 이유는 가사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즉 공부하는 여학생은 살림 솜씨를 배우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사돈 마님이 여학생에 대해 편견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여학생들은 게으르고 제대로 하는 집안일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비단 사돈 마님만의 생각은 아니다. 경희네 집을 드나드는 떡장사가 주워듣고 퍼뜨리는 여학생에 대한 험담은 '요새 신문에 어느 여학생이 학교 간다고 나가서는 며칠 아니 들어오는 고로 수색을 해보니까 어느 사내에게 꾀임을 받아서 첩이 되었더란 말이며, 어느 집에는 며느리로 여학생을 얻어왔더니 버선 깁는 데 올도 찾을 줄 몰라 삐뚜로 대었더란 말, 밥을 하였는데 반은 태웠더란 말'처럼 어느 집 며느리가 된 신여성이

154 「경희」, 『나혜석 전집』, 84면

얼마나 가사일을 못하는가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여학생들에 대한 비판 의식은 바로 그들이 여성이 해야 할 일을 등한시한다는 데서 출발한다.

> 떡장사의 말소리는 아무 힘이 없다. 떡장사는 이 작은 아씨가 "그래서 어쨌소"하며 받아만 주면 이야기할 것이 많았다. 저의 집 떡방아 찧던 일꾼에게서 들은, 요새 신문에 어느 여학생이 학교 간다고 나가서는 며칠 아니 들어오는 고로 수색을 해보니까 어느 사내에게 피임을 받아서 첩이 되었더란 말이며, 어느 집에는 며느리로 여학생을 얻어왔더니 버선 깁는 데 올도 찾을 줄 몰라 삐뚜로 대었더란 말, 밥을 하였는데 반은 태웠더란 말, 날마다 사방으로 쏘다니며 평균 한 마디씩 들어온 여학생의 험담을 하려면 부지기수이었다.[155]

셋째, 일본 유학을 다녀온 경희가 사내처럼 난 체하지 않고 보통 '여편네'처럼 일하는 모습에 어머니는 안도한다 등이다. '김부인은 과연 경희가 일하는 것을 볼 때마다 큰 안심을 점점 찾았다. 그것은 경희를 일본 보낸 후로는 남들이 비난할 때마다 입으로는 말을 아니하나 항상 마음으로 염려되는 것은 경희가 만일에 일본까지 공부를 갔다고 난 체를 한다든지 공부한 위세로 사내 같이 앉아서 먹자든지 하면 그 꼴을 어떻게 남이 부끄러워 보잔 말인고 하고 미상불 걱정이 된 것은 어머니된 자의 딸을 사랑하는 자연한 정(情)이라.'에서 알 수 있다. 이것은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열등하다는 가부장제의 전통방식에 수긍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런 시각은 가사 노동이 여성만의 역할로 고정화되었다는 점을 수용하는 것이다.

---

155 「경희」, 『나혜석 전집』, 88면

가사노동이 여성만의 역할로 고정화 된 것은 조선시대 봉건적 여성관인 '부부유별관'에서 살필 수 있는데 부부유별관에 따르면 일에 있어서 내외의 분업은 남녀의 역할구분이라고 하여, 여성에게 부여된 내업의 내용은 모두가 내방(內房)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방적, 재봉, 요리, 자녀양육 및 교육 등 가정생활 전반에 걸친 치가(治家)의 역할이었다.[156]

> 김부인은 과연 경희가 일하는 것을 볼 때마다 큰 안심을 점점 찾았다. 그것은 경희를 일본 보낸 후로는 남들이 비난할 때마다 입으로는 말을 아니하나 항상 마음으로 염려되는 것은 경희가 만일에 일본까지 공부를 갔다고 난 체를 한다든지 공부한 위세로 사내 같이 앉아서 먹자든지 하면 그 꼴을 어떻게 남이 부끄러워 보잔 말인고 하고 미상불 걱정이 된 것은 어머니된 자의 딸을 사랑하는 자연한 정(情)이라. 경희가 일본서 오던 그 이튿날부터 앞치마를 치고 부엌으로 들어갈 때 오래간만에 쉬러 온 딸이라 말리기는 하였으나 속으로는 큰 숨을 쉴만치 안심을 얻은 것이다.[157]

그런데 경희는 이러한 가사노동을 힘들다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보다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문맥에서 교육받은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가사 수행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읽혀진다. 가사노동을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함으로써 즐겁게 노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가부장체제 아래에서의 도덕적이고 모범적인 여성에 대한 전형적인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경희가 이렇게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 바로 가사를 형편없이 해서 어른들을 근심하게 하는 '여학생'들이다. 이

---

156 한명숙, 앞의 논문, 38면

157 「경희」, 『나혜석 전집』, 95면

여학생들은 "바느질도 못 한다든가, 빨래를 아니 한다든가, 살림살이를 할 줄 모른다"고 소문이 났다. "어느 집에는 여학생을 며느리로 얻어왔더니 버선 깁는데 올도 찾을 줄 몰라 모두 삐뚜루 대었더란 말, 밥을 하였는데 반은 태웠더란 말"도 여학생 험담에 꼭 따라다니는 말이다. 여학생에 대한 험담이 주로 가사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되어 있다.

이 바느질과 부엌일을 잘 못하는 여학생들이 퍼뜨려 놓은 여학생에 대한 나쁜 평판을 뒤집어 놓으려는 것이 경희의 의도이다. 그러기에 부지런히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그리고 그런 며느리로 근심이 그칠 날이 없는 수남 어머니를 보며 자신이 가질 가정은 그런 가정이 아니며 내 자손, 내 친구 '내 문인들이 만들 가정도 이렇게 불행하게 하지 않는다, 오냐, 내가 꼭 한다'고 다짐한다. 그러니까 경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역으로 다른 여학생들이 그렇게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여성의 교육권 획득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경희가 가사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경희의 집안 여자들이 쉬지 않고 일을 하면 할수록[158] 여성의 노동을 바라보는 이들의 시선에서 남성의 시각을 느낄 수 있게 된다.

> 여성주체성을 유물론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 한 축이 섹슈얼리티라면 또 다른 축은 노동이다. 여성노동의 제1차적인 부분이 바로 가사경제이다. 여성주체의 섹슈얼리티와 함께 여성노동을 포괄하는 이론은 성과 계급의 얽힘 문제를 푸는 것이기도 하다.[159]

이처럼 여성노동은 여성과 남성의 문제를 풀어내는 접근방법으로서 중

158 서정자, 앞의 책, 48~51면

159 태혜숙, 앞의 책, 77면

요하다. 하지만 나혜석은 「경희」에서 떡장사가 쉬지않고 일하는 경희에게 묻는 말에 '여편네가 여편네 할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이 그리 신통할 것 있소.'처럼 경희가 하는 일은 여성으로서 당연히 해야만 하는 것으로 즉, 남성적 시각을 여실히 보이고 있다.

"이 더운데 작은 아씨, 무얼 그렇게 하십니까?"

마루끝에 떡 함지를 힘없이 놓으며 땀을 씻는다. 얼굴은 억죽억죽 얽고 머리는 평양머리를 해서 얹고 알록달록한 면주수건을 아무렇게나 쓴 나이가 한 사십가량 된 떡장사는 으레 하루에 한 번씩 이 집을 들린다.

"심심하니까 장난 좀 하오."

경희는 앞치마를 치고 마루 끝에 서서 서투른 칼질로 파를 썬다.

"어느 틈에 김치 담그는 것을 다 배우셨어요. 날마다 다니며 보아야 작은 아씨는 도무지 노시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책을 보시지 않으면 글씨를 쓰시고 바느질을 아니 하시면 저렇게 김치를 담그시고……."

"여편네가 여편네 할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이 그리 신통할 것 있소."

"작은 아씨 같은 이나 그렇지 어느 여학생이 그렇게 마음을 먹는 이가 있나요."[160]

'어느 틈에 김치 담그는 것을 다 배우셨어요. 날마다 다니며 보아야 작은 아씨는 도무지 노시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책을 보시지 않으면 글씨를 쓰시고 바느질을 아니 하시면 저렇게 김치를 담그시고…… 작은 아씨 같은 이나 그렇지 어느 여학생이……'처럼 경희는 신여성에 대해 회의적

160 「경희」, 『나혜석 전집』, 86~87면

인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부지런히 일을 함으로써 자신을 이해시키는데, 이것은 당시 남성, 여성들 모두 신여성에 대한 올바른 면을 보지 못하고 신여성은 '가사노동을 못한다, 신교육을 받으면 여자를 버린다, 여자는 배워야 쓸데가 없다……' 등의 편견으로 신여성의 인간적 자각과 주체성의 확립, 여성의 교육을 억압하려는 사회 분위기가 만연해 있던 시대 분위기를 반영한 작가의 의도가 내재된 것이다.[161]

나혜석은 효과와 능률면에서 예전과 다르게 노동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다. 이렇게 「경희」에서 나혜석이 여성노동을 긍정적으로 그린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가정이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 조건들 중 하나이면서도 그 중요성이 쉽게 인식되지 않는 가사노동으로 인해 수많은 여성들은 자신의 건강과 삶을 소비해 왔기[162] 때문에 여성이 행하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그것이 여성만의 일로 되어있는 현실에서 오히려 여성들의 반감을 사기가 쉽고, 가사노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성과 남성 모두가 깨달을 때 가사노동을 맡아 하는 여성도 자신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남성도 여성을 존중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혜석은 가사 노동의 전담이라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는 여성의 질곡에 대해서 너무 단순화하고 만다. 안팎으로 완벽하게 잘 하지 않으면 비난의 대상이 되는 현실을 이겨내야 하는 여성의 이중적 고통을 단지 경희의 의식 전환으로써만 극복하게끔 했던 것이다. 교육을 통해 사물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자각이 이루어졌다 해도 노동을 너무 단순화하는 것은 나혜석 페미니즘의 한계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

161 최지원, 앞의 논문, 29면

162 Moris, P., 강희원 역, 『문학과 페미니즘』, 문예출판사, 1999, 107~109면, 김윤주, 앞의 논문, 78면에서 재인용

다.[163] 그러나 일제 식민지아래의 가부장제라는 시대적 한계속에서 일구어낸 여성노동에 대한 긍정적 시각은 높이 평가받아야만 할 것이다.

3) 하녀와의 평등관계 지향

> 여성노동이야말로 자본주의 가부장제 생산양식의 결정적이고도 기초적이며 구조적인 중심을 이룬다. 그런데도 그것은 그림자 속에 가려져 있다. 바로 이런 상황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면서 해러웨이, 미즈, 스피박은 여성노동에 대한 재개념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 중 스피박이 제3세계 여성주체를 '하위주체'로 형상화한다.[164]

여성하위주체(gendered subalterns)[165]는 스피박이 주장한 이론이다. 따라서 시월이를 여성 하위주체라 명명하는 것은 나혜석이 제3세계 부르주아 지식인 여성으로서 지식인 여성인 자신과 계급이 다른, 하위계층 여성인 시월이가 겪었을 억압에 대해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흑인여성의 주체화를 논의한다고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주변부에 속하는 흑인여성들 중에서도 가장 소외된 창녀를 은연중 배제하는 논리가, 섹슈얼리티(sexuality)에 대한 특정한 도덕적 관점, 즉 백인남성/흑인남성/백인여성 중심의 관점을 은연중에 답습하는 것임을 간파할 수 있다[166]

---

163 최지원, 앞의 논문, 34면

164 태혜숙, 앞의 책, 151면

165 여성하위주체란 제3세계의 부르주아 지식인 여성과 구분되는 하층여성들을 말함. 태혜숙, 위의 책, 96면

166 태혜숙, 위의 책, 188면

고 하듯 시월이를 배제하는 논리도 은연중에 가부장체제 내적 의식을 답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 시월이가 가려져 있는 상황을 살펴보자.

경희가 밀짚이 타는 불길을 보면서 동경 음악학교에서 듣던 관현악주를 연상하며 재미있어 하고 모든 가사 노동을 재미있게 느끼는 것은 이 모든 가사가 '당신들의 일'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작품 「경희」에 그려진 가사노동의 주인공은 시월이며, 경희는 보조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소설 「경희」의 가사노동은 경희 중심으로 그려져 있고 시월이는 우물 뚜껑이나 더럽게 해놓는 무지한 하녀로만 그려져 있다. 가사노동 묘사에서 시월이는 가려져 있는 것이다.[167]

어멈 시월이는 결혼한 여자이고 아들 점동이를 두고 있고 하인의 신분인 듯하다. 그는 작은 아씨 경희의 인정스러움과 무슨 일이든지 재미있게 잘하는 점을 존경하고 있다. 그는 빨래를 하고 푸새를 하고 방아도 찧는 등 궂은일을 도맡고 있다.

경희는 일본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돌아올 때에 '이번에 경희가 일본서 올 때에 시월의 자식 점동(點童)이에게는 큰댁 애기네들보다 더 좋은 장난감을 사다가 준 것은 뼈가 녹기 전까지는 잊을 수가 없다.'처럼 시월이의 아들 점동이에게 큰댁 아기들보다 더 좋은 장난감을 사다가 주었고, '애. 나하고 하자. 부뚜막에 올라앉아서 풀막대기로 절라? 아궁이 앞에 앉아서 땔라? 어떤 것을 하였으면 좋겠니? 너 하라는 대로 할 터이니, 두 가지를 다 할 줄 안다…… 아이구, 고만 두셔요, 더운데. 시월이는 더운데 혼자 풀을 저으면서 불을 때느라고 끙끙하던 중이다.'처럼 더운 여름에 풀을 저으며 불을 때느라 고생하는 시월이를 도와주기도 하며, 시월이가 빨래하러 가는 날엔 대신 저녁을 지어 주마고 약속을 하기도 한다. 경희의 시월이에 대한 배려는 자매애(sisterhood)와도 같다. 경희가

167 서정자, 앞의 책, 53~54면

집안일을 열심히 해 주는 것도 결국 시월이를 도와주는 셈일 터이다.[168] 이렇게 시월이를 도와주는 경희의 행동은 시월이가 해야하는 일이 꼭 시월이 혼자만이 책임져서 해야하는 일은 아니라는 의식을 경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여기에서 경희가 시월이를 자신과 평등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평등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담론의 표면구조는 평등관계를 지향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인과 상전의 관계인 시월이와 경희가 힘든 부엌일을 함께 하며 고통을 나누고 있기 때문이다. '얘. 나하고 하자. …… 그러면 불을 때셔요. 제가 풀을 저을 것이니…… 경희는 불을 때고 시월이는 풀을 젓는다.' 하는 것과 시월이가 빨래하러 가는 날엔 대신 저녁을 지어 주마고 약속을 하는 모습에서 알 수 있다.

다음은 '시월이도 같이 웃는다. 어쩌면 사람이 저렇게 인정스러운가 한다. 누가 나 먹으라고 단 참외나 주었으면, 저 작은 아씨 갖다 드리게 속으로 혼잣말을 한다.'처럼 시월이가 경희(작은 아씨)가 자신의 일을 도와주는 것이 고마워 옥수수며, 살구며를 구해다가 드리고 싶어하는 것과, 자기 자식 점동이에게 큰댁 애기들보다 더 좋은 장난감을 사다 준 것에 대한 감사함을 드러내는 부분으로 경희의 시월이에 대한 배려가 시혜자적임을 볼 수 있다.

> 시월이도 같이 웃는다. 어쩌면 사람이 저렇게 인정스러운가 한다. '누가 나 먹으라고 단 참외나 주었으면, 저 작은 아씨 갖다 드리게' 속으로 혼잣말을 한다. 과연 시월이는 이렇게 고마운 소리를 들을 때마다 황송스러워 어찌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입이 있으나 어떻게 말할 줄도 모르고 다만 작은 아씨가 잘 먹는 과실은 아는지라, 제게 돈이

168 서정자, 앞의 책, 51~55면

있으면 사다가라도 드리고 싶으나 돈은 없으므로 사지는 못하되 틈틈이 어디 가서 옥수수며 살구는 곧잘 구해다가 드렸다. 이렇게 경희와 시월이 사이는 사이가 좋을 뿐 아니라 이번에 경희가 일본서 올 때에 시월의 자식 점동(點童)이에게는 큰댁 애기네들보다 더 좋은 장난감을 사다가 준 것은 뼈가 녹기 전까지는 잊을 수가 없다.169)

다음은 시월이와 경희가 서로 상대방에 대해 가지는 마음이다. 먼저 '시월이는 속으로 저녁 진지에는 작은 아씨의 즐기시는 옥수수를 어디 가서 맛있는 것을 얻어다가 쪄서 드려야겠다'와 같이 풀을 젓는 시월이는 내내 경희를 고마워하며 옥수수를 구해다 쪄드려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경희는 '위에서는 푸푸, 부글부글 하는 소리, 아래에서는 밀짚이 탁탁 튀는 소리, 마치 경희가 도쿄음악학교 연주회석에서 듣던 관현악 연주소리 같기도 하다. 또 아궁이 저 속에서 밀짚 끝에 불이 댕기며 점점 불빛이 강하게 번지는 동시에 차차 아궁이까지 가까워지자 또 점점 불꽃이 약해져 가는 것은 마치 피아노 저 끝에서 이 끝까지 칠 때에 붕붕 하던 것이 점점 땡땡 하도록 되는 음률과 같아 보인다.'처럼 불을 때면서 음악적인 상상력을 통해 즐거움을 맛보며 '열심히 젓고 앉은 시월이는 이러한 재미스러운 것을 모르겠구나 하고 제 생각을 하다가 저는 조금이라도 이 묘한 미감(美感)을 느낄 줄 아는 것이 얼마큼 행복하다고도 생각하였다.'처럼 이런 재미를 모르는 시월이보다 자기가 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그 재미를 모르는 시월이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대신 경희는 일본/동경/음악학교/관현악주/피아노로 상징되는 근대에 관심을 보일 뿐이다. 따라서 경희가 보여주는 자매애란 시혜자 의식에 가까운 것이다.

---

169 「경희」, 『나혜석 전집』, 91~92면

"얘. 나하고 하자. 부뚜막에 올라앉아서 풀막대기로 절랴? 아궁이 앞에 앉아서 땔랴? 어떤 것을 하였으면 좋겠니? 너 하라는 대로 할 터이니, 두 가지를 다 할 줄 안다.."

"아이구, 고만 두셔요, 더운데."

시월이는 더운데 혼자 풀을 저으면서 불을 때느라고 끙끙하던 중이다.

"아이구, 이년의 팔자" 한탄을 하며 눈을 멀거니 뜨고 밀짚을 끌어 때고 앉았던 때라, 작은 아씨의 이 말 한 마디는 더운 중에 바람 같고 괴로움에 웃음이다. 시월이는 속으로 '저녁 진지에는 작은 아씨의 즐기시는 옥수수를 어디 가서 맛있는 것을 얻어다가 쪄서 드려야겠다'하였다. 마지 못하여,

"그러면 불을 때셔요. 제가 풀을 저을 것이니……."

"그래, 어려운 것은 오랫동안 졸업한 네가 해라."

경희는 불을 때고 시월이는 풀을 젓는다. 위에서는 푸푸, 부글부글하는 소리, 아래에서는 밀짚이 탁탁 튀는 소리, 마치 경희가 도쿄음악학교 연주회석에서 듣던 관현악 연주소리 같기도 하다. 또 아궁이 저 속에서 밀짚 끝에 불이 댕기며 점점 불빛이 강하게 번지는 동시에 차차 아궁이까지 가까워지자 또 점점 불꽃이 약해져 가는 것은 마치 피아노 저 끝에서 이 끝까지 칠 때에 붕붕 하던 것이 점점 땡땡 하도록 되는 음률과 같아 보인다. 열심히 젓고 앉은 시월이는 이러한 재미스러운 것을 모르겠구나 하고 제 생각을 하다가 저는 조금이라도 이 묘한 미감(美感)을 느낄 줄 아는 것이 얼마큼 행복하다고도 생각하였다. 그러나 저보다 몇십백 배 묘한 미감을 느끼는 자가 있으려니 생각할 때 제 눈을 빼어버리고 싶고 제 머리를 뚜드려 바치고도 싶다.[170]

---

170 「경희」, 『나혜석전집』, 90~91면

가사일의 주체가 하녀인 시월이고 경희는 조력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경희가 중심인 것으로 묘사되어 시월이라는 존재가 가려지고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시월이에 대해 경희가 갖는 시혜자적 자매애는 나혜석의 부르주아적 페미니즘으로 보여 지는 바, 이 작품이 갖는 한계이다. 이는 나혜석이 가부장적 권위는 부정하는 페미니스트지만 계급차별에 대해서는 무감각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171)

다음은 경희가 당시 비녀 쪽진 부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나온다. 경희는 신교육을 받지 않은 여성들 축에 시월이, 부인네들을 모두 포함시킨다. 경희는 '이제까지 비녀 쪽진 부인들을 보면 매우 불쌍히 생각하였다. 저것이 무엇을 알고 저렇게 어른이 되었나. 남편에게 대한 사랑도 모르고 기계같이 본능적으로만 저렇게 금수와 같이 살아가는구나. 자식을 귀애(貴愛)하는 것은 밥이나 많이 먹이고 고기나 많이 먹일 줄만 알았지 좋은 학문을 가르칠 줄은 모르는구나.' 와 같이 부인네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기계같이 본능적으로 금수와 같이 살고 있는 것으로 보며 '저것도 사람인가'하는 교만한 눈으로 쳐다본다. 더욱이 그런 부인네들을 익명으로 처리하고 시월이를 다음에 언급한 것은 시월이를 그들의 대표격으로 지목한 것으로 경희가 시월이를 대하는 의식을 볼 수 있다.

> 경희는 이제까지 비녀 쪽진 부인들을 보면 매우 불쌍히 생각하였다. '저것이 무엇을 알고 저렇게 어른이 되었나. 남편에게 대한 사랑도 모르고 기계같이 본능적으로만 저렇게 금수와 같이 살아가는구나. 자식을 귀애(貴愛)하는 것은 밥이나 많이 먹이고 고기나 많이 먹일 줄만 알았지 좋은 학문을 가르칠 줄은 모르는구나. 저것도 사람인가'

171 최지원, 앞의 논문, 53면

하는 교만한 눈으로 보아왔다. 그러나 웬일인지 오늘은 그 부인네들이 모두 장하게 보인다. 설거지하는 시월이 머리에도 비녀가 꽂힌 것이 저보다 훨씬 나은 것도 같이 보인다.[172]

시월이와 비교하여 경희는 더욱 행복감을 느끼는가 하면[173] 시월이는 하층계급 여성이므로 경희의 눈에는 시월이의 노동이 당연시되었고 시월이의 배우지 못함도 여성 하위계층이므로 당연히 제외되어 있는 것이다.

「경희」가 현모양처의 부덕이라는 것이 다름 아닌 가부장제의 노예 만들기라고 간파하며 학식을 통한 실력 배양으로 여권을 획득하자는 내용을 서술하지만 그녀가 의식한 독자는 이미 신교육을 받은 신여성층을 상대로 한 것이었다.

이렇듯 사회계층에서 기득권층인 나혜석은 버지니아 울프가 그러했듯 피해자의 쓰라린 고통이 결여되었다는 점[174]에서, 다시 말해 진정으로 고통받는 여성의 입장을 이해할 만한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여성하위계층의 사람들이 겪었을 고통에 대해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

그러므로 「경희」에서 하위계층 여성은 피식민지인/가부장제 여성/하위계층 여성(시월이)으로 타자화 된다. 따라서 이 작품 「경희」는 나혜석이 가부장제의 보수적인 성격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하인과 상전의 관계인 시월이와 경희가 힘든 부엌일을 함께 하며 고통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 담론은 평등관계를 지향하고 있다는 의의를 가진다.

---

172 「경희」, 『나혜석 전집』, 101면

173 송명희, 『이광수의 민족주의와 페미니즘』, 국학자료원, 1997, 326면

174 이호숙, 앞의 책, 154~188면

2. 피식민지인으로서 본 일본 제국주의 여성교육과 「경희」

피식민지 상태로 전락한 상황에서 피식민지 백성의 욕망, 그 중에서도 피식민지 여성의 욕망은 한층 중층적 구조를 취할 수밖에 없다.

피식민지(비서구)는 서구의 타자, 문명의 타자로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또 하나의 서구화된 일본이 하나의 제국으로서 즉, 다른 동아시아국가를 식민지화·타자화 하는 일본에 의해 타자화 되고 있어 더욱 중층적이다.

호미 바바(Homi Bhabha)는 자크 라캉(Jacques Lacan)의 모방이론을 차용, 모방이야말로 피식민 타자의 전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피식민지인들은 서구 근대 문화를 거부하지 않고 모방함으로써 타협하게 되고, 타협은 혼성, 잡종성을 드러낸다고 한다.

이 같은 피식민적 모방담론을 근대 초기 작품에서 찾아보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 특히 여성 주인공의 경우 이중적으로 타자화된 양상을 띤다. 즉 남성에게 타자화되고, 식민 모국에 의해 타자화된다. 여성의 욕망은 남성의 욕망을 그대로 흡수한 타자화된 욕망이며, 식민 모국의 욕망을 타자화하여 내면화한[175] 욕망이다. 그러면 식민지가 요구하는 피식민지인의 타자화란 어떤 것인지 살펴보자.

> 식민주의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지배대상은 피지배인의 정신세계이다. 피지배인들이 그들 자신을 감지하는 방법과 세계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 등을 문화를 통해서 통제하려는 것이다. 정신세계에 대한 지배 없이 정치·경제적 지배의 완성은 허구임을

175 김복순, 앞의 책, 114~115면

>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식민지 민중문화의 통제는 고로 타자와의 관계에서 자기정체성을 규정하는 도구를 통제함을 의미한다. 식민주의는 이 과정을 두 가지 속성을 통해 드러낸다. 하나는 피지배 민중의 문화·예술·가무·종교·역사·지리·교육·오레이처, 그리고 문학의 가치를 해체하거나 의도적으로 폄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배자의 언어적 가치를 의식적으로 고양하는 것이다. 식민지 민중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언어를 지배자의 언어 밑에 종속시키는 것이다.176)

따라서 식민 세력은 피식민지인들에게 우월한 식민 세력의 문물과 문화를 닮고 흉내내라고 강요한다. 일본의 조선 침탈을 상기하면 구체적인 사례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훨씬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다. 내선일체(內鮮一體) 즉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는 일본을 열심히 흉내내고 따라하면 일본과 조선이 하나라는 말이지만 결코 일본이 조선과 하나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것은 조선이 일본을 모방하는 것으로 '따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본은 일본이고 조선은 복사본이다.

> 바바에 따르면 식민 세력은 지배 대상이 완전히 자신들과 똑같이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주체와 대상이 정말 똑같아 진다면, 즉 차이가 소멸된다면 지배 세력의 권위 또한 사라지기 때문이다. 똑같이 흉내내고 따라 하면서도 식민 대상은 식민 세력과 완전히 동일해 질 수 없고, 자신들을 흉내내고 같아지라고 강요하는 식민 세력은 결코 동일성의 차원으로 환원되지 않는 부분적인 차이를 만들어 내고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177)

---

176 응구기 와 씨옹오, 이석호 옮김, 『탈식민주의와 아프리카 문학』, 인간사랑, 1999, 51~52면

177 이윤성, 「정체성과 잡종성: 그 오래된 이야기」, 『경희대외대어문논총』 9, 1999.12.

바바의 논지를 따르자면 피지배자가 식민권력에 의해 제국에 동화되는 가운데 지배자를 모방하게 됨으로써 '거의 같지만 똑같지는 않은' 닮은꼴로서의 피지배자의 식민통치에 필요한 인적 자원이 된다[178]는 것이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일반적인 특징은 군사적 억압에 의한 지배로 나타난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식민지 피압박 민족의 민족적 특성을 말살하여 동화시키는 정책, 즉 일본인화 정책을 추진하는 일이었다. 일본 제국주의가 동화정책을 추진한 까닭은, 군사력에 의한 폭력적 억압만으로는 식민지 지배의 안정을 얻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식민지 민족의 정신 내부에까지 파고들어 민족으로서의 독자성을 잃게 하고 일본인화 시킴으로써 일본지배의 안정을 꾀하려 한 것이었다. 특히 일본은 여성교육정책에 중점을 두었다.

일본은 조선 여성의 가정 내에서의 역할에 주목하여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식민지정책에서 사회감정의 융합은 여성의 감화를 통하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파악하고 당시 일본본국에서 국가질서를 위해 시행되었던 '가(家)' 중심, '양처현모주의(良妻賢母主義)' 여성교육을 이식하여 현모양처주의 여성교육을 실시하였다.[179] 이 같은 식민지 시기 현모양처교육은 종래의 전통적 현모양처론에 대한 이상적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사회에서나 여성들에게 별 거부감 없이 수용될 수 있었다.[180]

일본의 여성교육정책은 1911년 8월에 공포한 조선교육령 여자고등보통

77~78면

178 태혜숙, 앞의 책, 37면

179 김윤주, 앞의 논문, 12~13면

180 신영숙, 「일제 시기 현모양처론과 그 실상 연구」, 『서울여대여성연구논총』 14, 1999.12, 111면

학교의 목적에서 "부녀자의 덕목을 길러…… 성격을 도야하고 생활에 유용한 지식기능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했듯이 여성교육방침을 정숙(靜肅)하고 순종적인 여자양성에 두었다. 그리고 교과목도 지적능력을 기르는 교과목보다는 가사, 재봉, 수예에 보다 많은 시간을 쏟게 하였다. 이러한 여성교육은 독립된 사회인으로서의 여성교육과는 무관한 것으로 여성을 남성의 종속적인 존재 또는 부속물 정도로 간주하는 것[181]이 목적이었다.

따라서 일제 식민지하에서의 한국의 교육은 그 특성에 따라 세 시기로 대별할 수 있다. 일제 초기는 1910~1919의 무단통치기(武斷統治期)의 교육으로, 중기는 1920~1937의 융화정책기(融和政策期)의 교육으로, 그리고 말기는 1938~1945의 황민화정책기(皇民化政策期)의 교육으로 볼 수 있다.

이 중 「경희」의 창작연대인 무단통치기는 한국민으로 하여금 이성의 발달을 꾀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주기보다는 일본어의 보급과, 충량(忠良)한 제국신민양성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러한 취지는 1911년에 공포된 조선교육령에도 그대로 나타나, 제2조에 명시된 교육의 목적을 보면, "교육은 교육에 관한 칙어(勅語)의 취지에 의거하여 충량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본의(本義)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제1차 조선교육령에 나타난 초기의 식민지 교육정책을 요약하면, 한국인을 충량한 일본인으로 만들며, 일본어를 습득 보급시키고, 되도록 적은 경비로 '실용적'이라는 이름 아래 초보적인 실업교육에 치중하게 하고 있으며, '시세와 민도'에 맞는 교육을 한다는 명분으로 한국인의 우민화(愚民化)를 적극 추진하여, 초등교육은 장려하였으나 고등교육은 철저히 억압하는 정책이었다.

---

181 여운실, 「1920년대 여자야학 연구」, 『성신사학』 12·13, 1996. 12. 187면

그리고 일제하에서의 사립 여자 전문학교들의 여자고등교육 이념은 크게 인격교육, 교양 및 전문 지식과 기술의 연마, 일본인화 교육으로 집약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일제하 여성고등교육기관의 교육이념은 그 으뜸이 인격교육이었다. 이러한 인격교육에 대하여 당시 동아일보는 <조선의 학계>라는 제목의 기사 속에서 "기독교 정신을 토대로 한 인격의 도야는 가정에 있어서 현모양처를, 사회에 있어서 조선 여성의 건실한 지도자를 내어 온 이화전문……"[182] 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황국여성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혀, 현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양처로서 가정을 다스리는 것을 여성의 본분으로 삼고 그에 필요한 부덕(婦德)을 기를 것을 기대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교양 및 전문 지식과 기술의 연마를 교육이념으로 하였다. 기예과는 재봉을 특별히 강조하는 기예과 제1부와, 재봉과 수예를 강조하는 기예과 제2부로 나뉘어 전공교육을 심화하고 있다.

끝으로 일본인화 교육을 강요받았다. 한국의 여성고등교육이 개시된 시점은 일본이 한국을 강점한 바로 그 해이다. 일본 식민지 교육정책하에서 이루어진 36년간의 한국의 여성고등교육은 정책적으로 일본인화 교육을 교육이념으로 한 왜곡된 교육이었다. 일본의 식민지 교육정책은 동화정책이자 민족의식 말살정책이며 더 나아가 황민화 정책이었다.

일제는 이러한 목적 이외에 한국 민족을 철저히 일본인화하여 영구히 한국민의 민족정신을 말살하는데 그 목표를 두었다. "가장 엄정한 의미에 있어서 조선민족의 동화(일본화)란, 저들로 하여금 일본 민족의 언어·풍속·습관 등을 채용 모방하게 하고, 다시 나아가서 일본민족의 충군애국(忠君愛國)의 정신을 체득시키는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일본인화 교육의 이념은 교육과정에 한국어 대신 일본어를 편

182 <동아일보>, 1933년 1월 1일자.

성하고 있으며, 그 후로도 수신·일본역사·일본학 등의 교과를 통하여 일본인화에 주력하였다. 더욱이 인명(人名)과 교명(校名)까지도 일본식으로 개명하게 하고, 일본인 교사를 임용토록 하며, 학교의 정규 교육활동 조차도 제한하였다.

이 시기의 교육과정의 특징을 보면, 주로 교양 중심의 인문학과 가정생활 관련 교과목을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전문학교 시기의 가사과 교육과정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에게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을 중심으로 한 고등교육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183]

이런 교육은 여성에게 행해지는 비형식적인 교육으로 지적인 면은 거의 제외되었고, 가정생활에 필요한 가사기술과, 어머니·아내·며느리로서의 덕육만이 강조되었다.[184]

따라서 일제하 여성교육은 순량한 황성신민 양성과 가부장제에 입각한 현모양처 교육에 그 목적이 있었다. 황민화, 우민화로 요약되는 식민교육의 특성은 전통적 여성성의 강화로 나타났으며, 여성교육은 여성의 주체 확립이나 지위향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개화를 위해 여성을 계몽하는 것이었다. 현모양처 교육 또한 남자와 대등하게 자유인으로서 교육시키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다 더 공손한 노예"로 만들려는 것이었다.[185] 결국 신여성에 나타나는 근대적 여성성은 조선의 유교적 가부장제가 식민지하 근대적 지식이라는 힘을 이용하여 새로운 근대적 가부장제를 성립해 가는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186]

---

183 김경희, 「한국여성고등교육기관의 변천과정 연구: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성신여대교육연구』 27, 1992. 12. 75~91면

184 김경희, 위의 책. 69면

185 백파, 「소위 신여성과 양처현모주의」, 『현대평론』, 1927.2 162면
이훈구, 「여성교육의 근본문제」, 『여성』, 1938.10, 30~31면

「경희」에서 경희의 참 신여성이 되기 위한 성역할 분담론은 현모양처 사상과 가사노동의 가치론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현모양처 사상에 대해 경희는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가 보자. 「경희」에 나오는 일녀가 가르치던 바느질 강습소, 일본에서 배운 청소방법 등은 일본을 통해 수입한 것이었다. 물론 이것은 신여성은 살림도 할 줄 모르는 존재라는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 사용한 설득전략이요, 수단이지 목표는 아니었다. 여성은 가사노동자일 뿐 아니라 사회적 노동에서도 재봉일과 같은 여성적 일만을 맡는다는 성역할 분담론인 것이다.

우선 「경희」에 나오는 일녀가 가르치던 바느질 강습소는 일본이 식민지 교육정책 중 가장 열심히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던 교육이었다. 일본은 생활에 유용한 지식기능을 가르치려 했고 그 중 가사·재봉·수예에 보다 많은 시간을 쏟았다. 그러므로 '양복 속적삼은 작년 여름에 남대문 밖에서 일녀(日女)가 와서 가르치던 재봉틀 바느질 강습소(講習所)에를 날마다 다니며 배웠지요. 제 조카들의 양복도 해서 입히고 모자도 해서 씌우고 또 제 오라비 여름 양복까지 했어요.'하며 바느질 강습소에서 배운 재봉틀을 잘한다고 하여 신여성의 장점을 논하는 것은 식민권력에 의해 일본 제국주의에 동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번 소제방법은 다르다. 건조적(建造的)이고 응용적이다. 가정학에서 배운 질서, 위생학에서 배운 정리, 또 도화(圖畵) 시간에 배운 색과 색의 조화, 음악 시간에 배운 장단의 음률을 이용하여, 지금까지의 위치를 전혀 뜯어 고치게 된다.'처럼 일본에서 배운 청소방법으로 건조적이고 응용적으로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보여 신여성의 장점을 논하는 것도 식민세력인 일본이 요구하는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에게 요구하는' 성역할 분담론

186 조은·윤택림, 「일제하 신여성과 가부장제」, 『광복 50주년 기념논문집』 8-여성, 한국학술진흥재단, 1995, 172면

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재봉틀 회사 감독이 경희가 번역한 번역본 덕에 '이제까지 일어로만 한 것이어서 부인네들 가르치기에 불편하더니 따님이 만든 책으로 퍽 유익하게 쓰겠습니다'고 한 말을 듣고 경희 어머니가 '좀 가르치면 어디든지 그렇게 쓸데가 있더구먼요. 그뿐 아니라 그 점잖은 일본사람들에게도 어찌 존대를 받는지 몰라요.'하는 것은 식민지 지배 담론을 모방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양복 속적삼은 작년 여름에 남대문 밖에서 일녀(日女)가 와서 가르치던 재봉틀 바느질 강습소(講習所)에를 날마다 다니며 배웠지요. 제 조카들의 양복도 해서 입히고 모자도 해서 씌우고 또 제 오라비 여름 양복까지 했어요. 일어(日語)를 아니까 선생하고 친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가르쳐주지 않는 것까지 다 가르쳐주더래요. 낮에는 배워가지고 와서는 밤이면 똑 열두 시, 새로 한 시까지 앉아서 배운 것을 보고 그대로 그리고 모두 치수를 적고 했어요. 나는 그게 무엇인가 하였더니 나중에 재봉틀 회사 감독이 와서 그러는데 '이제까지 일어로만 한 것이어서 부인네들 가르치기에 불편하더니 따님이 만든 책으로 퍽 유익하게 쓰겠습니다' 하는 말에 그런 것인 줄 알았어요. 좀 가르치면 어디든지 그렇게 쓸데가 있더구먼요. 그뿐 아니라 그 점잖은 일본사람들에게도 어찌 존대를 받는지 몰라요. 그 애가 왔단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감독이 일부러 일전에 또 찾아왔어요. 일본서 졸업하고는 기어이 자기 회사의 일을 보아 달라고 하더래요.[187]

경희 어머니의 근대교육에 대한 의식은 피상적 수준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일본인을 '번질한 양복을 입고 금시곗줄을 늘인 점잖은 감독'으로 보는 것은 일본인을 동경하는 무의식을 보이는 것이며, 이는 식민지 민

187 「경희」, 『나혜석 전집』, 84면

족의 정신 내부에까지 파고 들어 민족으로서의 독자성을 잃게 하고 일본인화 시키려하던 동화정책이 무의식에 반영된 것이다. '번질한 양복을 입고 금시곗줄을 늘인 점잖은 감독이 조그마한 여자를 일부러 찾아와서 절을 수없이 하는' 것을 보고, '과연 공부라는 것은 꼭 해야 할 것이고, 하면 조금 하는 것보다 일본까지 보내서 시켜야만 할 것을 알았다.'고 하는 부분은 피식민지인으로서 식민지인을 동경하고 모방하고자 하는 무의식과 근대교육·일본교육의 우월성에 대한 은연 중의 강조를 드러내고 있다. 이때 ' 일어(日語)를 아니까 선생하고 친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가르쳐주지 않는 것까지 다 가르쳐주더래요.'와 같이 일본어는 식민모국의 지배담론을 더욱 가속화시켜 주는 중차대한 수단이 된다.[188]

하지만 일본어를 알아야 일본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일본어의 습득 양상을 중시하는 것이 무리한 것은 아니다.

> 김부인은 과연 알았다. 공부를 많이 할수록 존대를 받고 월급도 많이 받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번질한 양복을 입고 금시곗줄을 늘인 점잖은 감독이 조그마한 여자를 일부러 찾아와서 절을 수없이 하는 것이라든지, 종일 한 달 30일을 악을 쓰고 속을 태우는 보통학교 교사는 많아야 육백스무 냥이고 보통 오백 냥인데 "천천히 놀면서 일년에 병풍 두 짝 만이라도 잘만 놓아주시면 월급을 꼭 사십 원씩은 드리지요" 하는 말에 김 부인은 과연 공부라는 것은 꼭 해야 할 것이고, 하면 조금 하는 것보다 일본까지 보내서 시켜야만 할 것을 알았다. 그러고 어느 날 저녁에 경희가 "공부를 하면 많이 해야겠어요. 그래야 남에게 존대를 받을 뿐 아니라 저도 사람 노릇을 할 것 같애요" 하던 말이 아마 이래서 그랬던가보다 하였다.[189]

---

188 김복순, 앞의 책, 117~119면

189 「경희」, 『나혜석 전집』, 85면

파농은 『검은 피부·하얀 가면』에서 프랑스에 살고 있는 흑인은 제도로서는 자유롭지만 여전히 무의식 속에 잠재해 있는 열등의식 때문에 분열적인 삶을 산다고 했다. 그들은 '검은 피부'에 '하얀 가면'를 쓰고 산다는 것이다. 불어를 잘 할수록, 피부가 백인에 가까울수록 사회적으로 인정받기에 자신들의 언어를 버리고 백인과 결혼하려 하며 백인이 심어놓은 열등감은 흑인에게 흑색공포증을 불어넣는다는 것이다. 문화적 정체성은 이렇게 무의식 속에 심어지는 정치적이고 분열된 정체성을 낳는 것을 보이고 있다.

> 앙띨레스에 사는 흑인들은 불어 구사능력에 따라 백인화의 정도를 평가받는다는 사실말이다. 불어를 얼마나 잘 구사하느냐에 따라 인간 됨됨이가 가늠된다는 것이다.[190]

일제의 교육정책도 기본적으로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말살시키고 '충량한 황국신민을 육성'하는 데에 있었다. 이를 위해 일본어의 보급과 천황제 사상의 주입에 역점이 두어진 반면에 한국의 역사와 지리는 공교육에서 사라졌다.[191]

이 당시 일본 유학생들은 이중성을 갖고 있다. 하나는 선구적·계몽적·근대지향의 민족의식을 소유한 면이고, 다른 하나는 근대 지향의 의식기반 속에 일본에 물든, 일본을 모방하는, 일본의 우월성을 인정하는 일본식·서구식 근대화 정신이 깃들어 있는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피식민지인은 대부분 자신의 민족을 주체로 삼는 민족주의 서사를 만

---

190 프란츠 파농, 이석호 옮김, 『검은 피부·하얀가면』, 인간사랑, 1998, 24면

191 유성희·박은경, 앞의 책, 146면

들어낸다. 가령 식민지인 대신 피식민지인 스스로가 문명화의 사명을 갖고 민족을 이끌어간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이 경우 피식민지인은 자신의 민족이 식민지인에 못지 않은 능력을 지녔다는 민족주의를 드러낸다.

그러나 그처럼 민족을 선도하는 주체는 소수의 지식인 엘리트이며 대다수의 민족은 여전히 원주민의 상태로 남아 있다. 서양의 학문(과학)을 배워 자신의 민족을 문명화시킬 수 있다는 지식인 엘리트의 생각은 한편으로 민족주의를 포함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런 서사 속에는 서양에는 문명의 가면을, 자신의 민족에는 원주민의 가면을 씌우는 오리엔탈리즘이 숨겨져 있다.[192]

'힘 있게 칼자루로 도마를 탁 치는 경희는 무슨 큰 결심이나 하는 것 같다. 경희는 굳게 맹세하였다. 내가 가질 가정은 결코 그런 가정이 아니다. 나뿐 아니라 내 자손 내 친구 내 문인(門人)들이 만들 가정도 결코 이렇게 불행하게 하지 않는다. 오냐, 내가 꼭 한다'에서 볼 수 있듯이 나혜석도 지식인 엘리트로서 우리민족을 문명화시키려 생각했다. 그러므로 그녀에게도 일본에는 문명이라는 가면을, 우리민족에게는 원주민이라는 가면을 씌우는 우를 범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 우리나라로서 문명화하지 않고, 즉 근대화하지 않고 민족의 주권을 찾을 길이 없었다는 시대적 한계를 갖고 있었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었다.

> 경희는 이 자극을 받는 동시에 이와 같이 조선(朝鮮) 안에 여러 불행한 가정의 형편이 방금 제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다. 힘 있게 칼자루로 도마를 탁 치는 경희는 무슨 큰 결심이나 하는 것 같다. 경희는 굳게 맹세하였다. '내가 가질 가정은 결코 그런 가정이 아니다. 나뿐

192 나병철, 「근대 서사와 탈식민주의」, 문예출판사, 2001, 204~205면

아니라 내 자손 내 친구 내 문인(門人)들이 만들 가정도 결코 이렇게 불행하게 하지 않는다. 오냐, 내가 꼭 한다' 하였다.[193]

이러한 지배 담론은 경희의 행동뿐만 아니라 의식과 감수성까지 명백히 지배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선의 현실이 식민 모국의 발언대로 "조선 안에 여러 불행한 가정의 형편이 방금 제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아 경희가 '오냐, 내가 꼭 한다'고 외치는 것이 지식인 엘리트로서 우리민족을 문명화시키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피식민지인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또 풀을 쑬 때 불 아궁이에서 밀짚이 탁탁 튀는 소리마저 도쿄 음악학교에서 듣던 관현악 연주같이 아름답게 느낀다.

경희는 불을 때고 시월이는 풀을 젓는다. 위에서는 푸푸, 부글부글 하는 소리, 아래에서는 밀짚의 탁탁 튀는 소리, 마치 경희가 도쿄음악학교 연주회석에서 듣던 관현악 연주소리 같기도 하다.[194]

'경희는 불을 때고 시월이는 풀을 젓는다. 위에서는 푸푸, 부글부글 하는 소리, 아래에서는 밀짚의 탁탁 튀는 소리, 마치 경희가 도쿄음악학교 연주회석에서 듣던 관현악 연주소리 같기도 하다.' 이 내용은 식민지 지배담론이 인식체계 뿐만 아니라 감수성의 차원까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단락으로 나혜석의 식민지인을 동경하는 무의식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경희는 "먹고만 살다 죽으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금수이지요." "경희도 사람이다. 그 다음에는 여자다. 그러면 여자라는 것보다 먼저 사람이다. 또 조선 사회의 여자보다 먼저 우주 안

193 「경희」, 『나혜석 전집』, 90면

194 「경희」, 『나혜석 전집』, 90~91면

전 인류의 여성이다."고 외치면서 식민 모국의 지배담론인 신교육을 적극 주장하게 된다.[195]

> 경희도 사람이다. 그 다음에는 여자다. 그러면 여자라는 것보다 먼저 사람이다. 또 조선 사회의 여자보다 먼저 우주 안 전 인류의 여성이다. 이철원 김 부인의 딸보다 먼저 하나님의 딸이다. 여하튼 두말할 것 없이 사람의 형상이다. 그 형상은 잠깐 들씌운 가죽뿐 아니라 내장의 구조도 확실히 금수가 아니라 사람이다.[196]

'우주 안 전 인류의 여성'이란 보편주의에 입각하여 일제하 조선사회의 여성이란 식민지적 특수성을 간과하였다. 당시의 이광수 등 근대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나혜석도 반봉건이 일차적 목표로 제시되었을 뿐 반제국의 의식에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혜석은 민족주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제하의 근대화 프로젝트 내에 스며든 일본 제국주의적 요소에 대한 비판의식까지 갖출 정도로 탈식민주의 페미니스트 의식은 갖추지 못했다. 또한 그는 실제 저항적 민족주의자로 투옥경력까지 있었지만, 즉 의식적으로는 제국주의에 저항한 민족주의자이지만, 그의 무의식에 스며든 근대, 일본, 서양 등에 대한 동경과 모방, 그리고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의식까지 갖추지는 못했다.

---

195 김복순, 앞의 논문, 117~119면

196 「경희」, 『나혜석 전집』, 103면

IV. 나혜석의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의 의의 및 한계

나혜석은 근대 초기의 대표적 페미니즘 이론가이자 문학가이며,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로서 2000년 2월에 문화부가 제정한 '문화인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아 기존에 논의되어 왔던 '유명무실한 문사이며 방종으로 몰락한 여성'이라는 부정적 견해와 '근대 여성운동의 선구자로 가부장제의 제단 위에 바쳐진 제물'이라는 페미니스트로서의 긍정적 견해를 넘어 새 천년의 이상적 여성모델로서 역사적·사회적으로 재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나혜석의 글들은 여성으로서 가부장제가 지배하는 식민지 조선사회를 살아간 구체적 경험에 근거하여 기존의 통념에 도전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억압적 지배사회 속에서 주변화되어 온 '타자들'을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온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시각에서 살피면, 나혜석은 '피식민지인'이며 '여성'이라는 이중적 억압을 받은 존재였다. 그리고 그녀의 단편소설 가운데 가장 압권에 속하는 「경희」는 근대적 여성교육이 전통적 여성 역할의 수행에도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여성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경희가 이상적 신여성으로 설정한 여성도 식민 국가가 제시한 현모양처상을 넘어선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식민 모국과 피식민지 남성에 의해 형성되어온 성역할 분담론에 토대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 까닭에 과거 피식민지의 역사나 문학을 재조명해 보는 이론인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비평 관점에서의 연구가 필요해지는

것이다.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은 아직 식민시대 여성의 삶과 역사를 발굴하고 재해석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일제의 식민통치 하에서 근대화를 겪었던 우리나라로서는 근대성에 대한 반성에서 반드시 탈식민주의 시각이 필요하며, 우리사회에서 식민시대 여성사를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관점에서 다시 재해석하는 일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다. 그리고 이런 작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때 우리 여성문학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나혜석의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의 의의 및 한계를 살펴보겠다.

II. 나혜석의 생애에 나타난 탈식민주의 페미니스트로서의 의의 및 한계는 다음과 같다. 억압의 이양 원리에 따라 보다 잔혹해진 일본 제국주의 아래의 식민지였던 조선의 민족주의는 자연히 저항적 성격을 띠게 되었고, 1910년대 일본 유학을 경험한 세대들이 3·1운동의 주체가 되었듯이 나혜석도 그들과 궤적을 같이하여 저항 민족주의자로서 활동했다. 또 1910년대 이후 일본 유학생 출신들이 1930년대 후반이면 거의 모두 친일의 길로 들어서게 되지만 나혜석은 끝까지 친일의 덫에 걸려들지 않았다.

여성작가가 문학작품을 창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나혜석의 글쓰기는 우선적으로 가부장제에 도전하고 있고, 나혜석의 글쓰기는 여성의 육체에 대한 논의를 기피하는 가부장제 사회의 금기를 깨뜨리는 여성적 글쓰기라는 의의를 가진다. 그녀는 여성들의 글쓰기를 적극 주장하기도 했으며 그녀 자신이 그런 여성적 글쓰기를 실천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여성적 글쓰기'라는 개념이 도입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나혜석의 이런 지속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글쓰기는 자신을 파멸로 밀어 넣었으나 그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혜석은 가부장제 조선사회내

에서 조선사회의 왜곡된 정조 관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여성에게 정조를 요구하려면 남성 자신도 정조를 지킬 것이며, 남성이 방종하려면 여성에게도 똑같은 자유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혜석은 경제적 어려움을 모르고 성장했기에 돈에 대해 철저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가부장제를 비난하지만 자신 스스로 가부장체제 내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III. 1. 「경희」에 나타난 가부장제 여성으로서의 의의 및 한계는 다음과 같다.

「경희」에서 나타난 여성교육은 신교육이 주부로서의 전통적 역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보다 유능한 가사수행자로서의 역할에 긍정적임을 강조함으로써 신교육에 대한 가치를 역설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경희가 하고 있는 일이란 바느질과 청소 요리 등이다. 이것은 경희도 가부장제가 유포시킨 성역할 분담론에 토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경희는 모든 사물에 자신의 고유한 명칭과 주체성이 존재하듯이 자신의 사람으로서의 존엄성과 주체성을 깨닫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경희」에서 나타나는 여성교육은 가부장제의 현모양처주의를 답습한 양상이라는 한계를 가지지만 여성에게도 근대교육이 꼭 필요함을 역설하고, 여성의 주체성 자각을 강조한 의의를 가진다.

「경희」에서 나타난 여성노동은 여학생에 대한 나쁜 평판을 뒤집어 놓으려는 경희의 의도에 의해 사용된 것으로 부지런히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설득하고 있다. 이것은 신여성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킨다는 차원에서 기존의 성역할 분담론에 토대한 가사노동의 가치론을 답습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경희가 하는 일은 여성으로서 당연히 해야만 하는 것으로 즉, 남성적 시각을 여실히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나혜석은

여성의 가사 노동의 전담이라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이 단순히 교육을 통해 사물과 상황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전환됨으로 인해 힘겨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식의 논리로, 여성의 고통과 현실을 너무나 단순화 해 버린다는 한계를 가지기도 한다. 하지만 「경희」에서 나혜석이 여성노동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한 의의를 가진다.

「경희」에서 하녀 시월이와 경희는 평등관계를 지향하고 있는 의의를 가진다. 경희의 시월이에 대한 배려는 자매애와도 같다. 경희가 집안일을 열심히 해 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담론은 평등관계를 지향하고 있다. 하인과 상전의 관계인 시월이와 경희가 힘든 부엌일을 함께 하며 고통을 나누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희가 보여주는 자매애란 시혜자 의식에 가까운 것이다.

III. 2. 피식민지인으로서 본 일본 제국주의 여성교육과 「경희」의 의의 및 한계는 다음과 같다.

식민세력은 피식민 주체들에게 우월한 식민세력의 문물과 문화를 닮고 흉내내라고 강요한다. 일본의 경우 '내선일체' 이데올로기가 그것이다. 「경희」에서 경희의 참 신여성 되기는 일본 제국주의가 주장하는 현모양처 이데올로기를 답습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경희의 신여성의 장점으로 나열한 것이 바느질 강습소에서 배운 재봉틀을 잘 하는 것인 점, 일본에서 배운 청소방법으로 청소를 하는 점, 일본어를 잘 한다는 점을 들어 신여성을 비호한 점, 경희의 어머니가 재봉틀 회사 감독을 '번질한 양복을 입고 금시곗줄을 늘인 점잖은 감독'으로 본 점, 밀짚이 튀는 소리를 도쿄 음악학교 관현악 연주소리로 듣는 점 등이란 것에서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나혜석은 일본에 동화된 이런 신여성을 긍정적으로 본 것이다.

또 나혜석이 자신 스스로를 지식인 엘리트로서 우리 민족을 근대화시

키려 하여 서양(일본)에는 문명의 가면을, 자신의 민족에게는 원주민의 가면을 씌우는 근대지향의 피식민지 지식인이 범하는 오류를 반복하고 마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경희」는 개인의 해방과 민족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구조적 원인이 현실적 지배세력인 일본 제국주의 통치에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나혜석의 개인적 한계라기보다는 당시 시대적 상황의 한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V. 결론

흔히들 한 개인은 자기가 태어난 시대를 뛰어넘기 힘들다고 한다. 나혜석 역시 근대사회로 변환하는 길목의 조선사회에 여자로 태어난 자신의 시대적 운명을 넘어서기 위해 피투성이의 싸움을 치뤘지만 패배하고 말았다.

나혜석은 1910년대 유학생 출신 지식인들이 그러했듯 모든 자리에서 지도적 역할을 요구받았고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기꺼이 받아들였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선각자였고 선구자던 그녀의 생애를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억압의 이양 원리에 따라 보다 잔혹해진 일본 제국주의 아래의 식민지였던 조선의 민족주의는 자연히 저항적 성격을 띠게 되었고 1910년대 일본 유학을 경험한 세대들이 3·1운동의 주체가 되었듯이 나혜석도 그들과 궤적을 같이하여 저항 민족주의자로서 활동한다.

둘째, 여성작가가 문학작품을 창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나혜석의 글쓰기는 우선적으로 가부장제에 도전하고 있고, 또한 여성의 육체에 대한 논의를 기피하는 가부장제 사회의 금기를 깨뜨리는 여성적 글쓰기였다. 그녀는 여성들의 글쓰기를 적극 주장하며 그녀 자신이 여성적 글쓰기를 실천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여성적 글쓰기'라는 개념이 도입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나혜석은 저항 민족주의자이며 페미니스트이므로 저항적인 페미니스트인 것이다.

「경희」에 나타난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가부장제 여성으로서 「경희」에서 나타난 여성교육은 신교육이 주부로서의 전통적 역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보다 유능한 가사수행자로서의 역할에 긍정적임을 강조함으로써 여성에게도 근대교육이 꼭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고, 경희는 모든 사물에 자신의 고유한 명칭과 주체성이 존재하듯이 자신의 사람으로서의 존엄성과 주체성을 깨닫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경희」에서 나타난 여성노동은 여학생에 대한 나쁜 평판을 뒤집어 놓으려는 경희의 의도에 의해 사용된 것으로 부지런히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설득하고 있다. 이것은 신여성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킨다는 차원에서 기존의 성역할 분담론에 토대한 가사노동의 가치론을 답습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경희」에서 나혜석이 여성노동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한 것이다.

셋째, 「경희」에서 하녀 시월이와 경희는 평등관계를 지향하고 있다. 하인과 상전의 관계인 시월이와 경희가 힘든 부엌일을 함께 하며 고통을 나누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경희」에서 일본식민세력은 피식민 주체들에게 우월한 식민세력의 문물과 문화를 닮고 흉내내라고 강요한다. 일제의 경우 '내선일체' 이데올로기가 그것이다. 「경희」에서 경희의 참 신여성 되기는 일본 제국주의가 주장하는 현모양처 이데올로기를 답습하고 있다. 또 나혜석이 자신 스스로를 지식인 엘리트로서 우리 민족을 문명화시키려 서양(일본)에는 문명의 가면을, 자신의 민족에게는 원주민의 가면을 씌우는 피식민지 지식인이 범하는 오류를 하고 만다. 따라서 나혜석은 민족주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제하의 근대화 프로젝트 내에 스며든 일본 제국주의적 요소에 대한 비판의식까지 갖출 정도로 탈식민주의 페미니스트 의식은 갖추지 못했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서정자 엮음, 나혜석기념사업회 간행, 『원본 정월 라혜석 전집』, 국학자료원, 2001

이상경 편집교열, 『나혜석 전집』, 태학사, 2000

<단행본>

강상중, 이경덕·임성모 옮김,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이산, 1997

김경수, 『페미니즘 문학비평』, 프레스21, 2000

------ 외, 『페미니즘과 문학비평』, 고려원, 1994

김미현, 『한국여성소설과 페미니즘』, 신구문화사, 1996

김승희, 『현대시 텍스트 읽기-구조주의에서 탈식민주의까지』, 태학사, 2001

김열규 외, 『페미니즘과 문학』, 문예출판사, 1988

김의락, 『탈식민주의와 현대소설-제3세계 문학과 영미문학의 이해』, 자작아카데미, 1998

나병철, 『근대서사와 탈식민주의』, 문예출판사, 2001

나혜석, 『이혼고백서』, 도서출판 오상, 1999

리타 펠스키, 김영찬·심진경 옮김, 『근대성과 페미니즘』, 거름, 1998

릴라 간디, 이영욱 옮김, 『포스트식민주의란 무엇인가』, 현실문화연구, 2000

빌 애쉬크로프트 외, 이석호 옮김, 『포스트콜로니얼 문학이론』, 민음

사, 1996
서정자, 『한국 여성소설과 비평』, 푸른사상, 2001
송명희, 『섹슈얼리티 · 젠더 · 페미니즘』, 푸른사상, 2000
-----, 『이광수의 민족주의와 페미니즘』, 국학자료원, 1997
-----, 『페미니즘과 우리시대의 성담론』, 새미, 1998
----- 외, 『페미니즘 정전 읽기 I』, 푸른사상사, 2002
송명희/여성연구회, 『페미니스트, 남성을 말한다』, 푸른사상사, 2000
알 베이커 · F 엘리스튼, 이일환 번역, 『철학과 성』, 홍성사, 1982
에드워드 사이드, 박홍규 번역,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1991
염혜정, 『여성의 삶과 미술-나혜석과 현대 여성작가 3인』, 창해, 2001
우리사회연구학회, 『현대사회와 여성』, 정림사, 1998
유순하, 『참된 페미니즘을 위한 성찰』, 문이당, 1996
유제분 엮음, 『탈식민페미니즘과 탈식민페미니스트들』, 현대미학사, 2001
이상경, 『인간으로 살고싶다-영원한 신여성 나혜석』, 한길사, 2000
이상현 편, 『달뜨고 별지면 울고 싶어라』, 도서출판 국문, 1981
응구기 와 씨옹오, 이석호 옮김, 『탈식민주의와 아프리카 문학』, 인간사랑, 1999
이화어문학회, 『우리 문학의 여성성 · 남성성』, 도서출판 월간, 2001
임금복, 『현대여성소설의 페미니즘 정신사』, 새미, 2000
임종국, 『임종국 선집 1-친일 그 과거와 현재』, 아세아문화사, 1994
『외국문학 31호』, 1992 여름, 열음사
조남현, 『1990년대 문학의 담론』, 문예출판사, 1998
치누아 아체베, 이석호 옮김, 『제3세계 문학과 식민주의 비평-희망과

장애』, 인간사랑, 1999
최석영, 『일제의 동화이데올로기의 창출』, 서경문화사, 1997
최혜실, 『신여성들은 무엇을 꿈꾸었는가』, 생각의 나무, 2000
태혜숙,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여이연, 2001
프란츠 파농, 이석호 옮김, 『검은 피부·하얀 가면』, 인간사랑, 1998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편, 『한국민족운동과 민족주의』, 국학자료원, 1999
한국비평문학회, 『비평문학 제14호』, 한국문화사, 2000
한국여성소설연구회, 『페미니즘과 소설비평』, 한길사, 1995
『현대시사상』, 고려원, 1996 봄

<논문>

권택영, 「한국문학에 투영된 한국여성의 초상: 사회 변동과 여성의식: 여성소설을 중심으로」, 『동국대한국문학연구』 19, 1997
김경희, 「한국 여성고등교육기관의 변천과정 연구: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성신여대교육연구』 27, 1992
김성곤, 「탈중심 경향과 포스트콜로니즘 문학: 탈식민주의와 문화적 제국주의」, 『성균관대인문과학』 27, 1997
김윤주, 「나혜석 문학 연구-작품에 나타난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김종복, 「한국서양화단 형성기의 여성작가 연구: 나혜석·백남순 중심으로」, 『효성여대연구논문집』 18, 1976
김지향, 「한국 근대여성문학의 기층의식 연구: 나혜석과 김탄실의 문학을 중심으로」, 『한양여전논문집』 16, 1993
김현화, 「한국 근대 여성 화가들의 서구 미술의 수용과 재해석에 관

한 연구: 나혜석과 백남순을 중심으로」, 『숙명여대아세아여성연구』 38, 1999

김희진, 「탈식민주의의 집단성과 개별성」, 『연세대연세학술논집』 30, 1999

나혜석기념사업회, 『나혜석의 생애와 그림』, 2000.2.18

----------, 『나혜석 바로알기 제1회 국제심포지엄』, 1999.4.27

----------, 『나혜석 바로알기 제2회 심포지엄』, 1999.12.10

----------, 『나혜석 바로알기 제3회 심포지엄』, 2000. 1.15

----------, 『나혜석 바로알기 제4회 심포지엄』, 2001.4.27

남부희, 「한국 근대 서양화가 나혜석론」, 『협성대협성논총』 8, 1997

노영희, 「나혜석 그 '이상적 부인'의 꿈: 동경 유학 체험과 일본 신여성들과의 만남을 중심으로」, 『한림대한림일본학연구』 2, 1997

류승희, 「드넓은 사가소바다에 나타난 탈식민주의 페미니즘-뿌리 없는 정체성 탐구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민경숙, 「마사 퀘스트: 진정한 여성성과 탈식민을 향한 여정」, 『용인대인문사회논총』 6, 2000

-----, 「프란츠 파농과 포스트콜로니얼 문화」, 『용인대인문사회과학연구』 2, 1998

박명숙, 「나혜석의 작품에 나타난 사상 연구」,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박영산, 「탈식민주의 문학이론 고찰」, 『동신대인문논총』 4, 1997

박옥선, 「영문학 텍스트상의 콜로니즘과 탈식민주의 관점」, 『한국해양대어문연구』 9, 1998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여성주의 이론의 흐름과 실천-한국 여성주

의 어디까지 왔나?」, 부산대학교 개교 55주년 기념/2001 『여성학 학술대회』, 2001. 12

서정자, 「나혜석 연구-1910년대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문학과 의식』, 1988

-----, 「나혜석의 처녀작 부부에 대하여」, 『여성문학연구 창간호』, 한국여성문학학회, 1999

송경숙, 「팔레스타인 여성작가 사하르 칼리파 연구-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인식을 중심으로」, 『지역연구』 4, 1995 여름호

신영숙, 「일제 시기 현모양처론과 그 실상 연구」, 『서울여대여성연구논총』 14, 1999. 12

양현아, 「한국의 호주제도: 식민지 유산 속에 숨쉬는 가족제도」, 『여성과 사회』 10, 1999

여운실, 「1920년대 여자야학 연구」, 『성신사학』 12·13, 1995

오민석, 「탈식민주의, 프란쯔 파농, 그리고 감자」, 『단국대논문집』 33, 1998

유성희·박은경,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정책의 특징과 전개과정」, 『인문사회과학연구』 창간호, 1998

윤혜원, 「한·일 개화기 여성의 비교 연구-자아의식의 근대화 과정을 중심으로」, 『아세아여성연구』 제14집, 숙명여대 아세아여성연구소, 1975

윤화영 역, 상게 엔토자케 저 (서평), 「흑인 여성 육체의 정치성: 무지개가 뜰 때-자살을 생각해 본 유색소녀들을 위하여」, 『부산대인문논총』 52, 1998

이상경, 「가부장제에 맞선 외로운 투쟁」, 『역사비평』, 1995 겨울호

-----, 「한국여성문학론의 역사와 이론」, 『여성문학연구』 창간호,

한국여성문학학회, 1999
이석호, 「제3세계 탈식민주의 문학논쟁의 한 유형-치누아 아체배의 신의 화살을 중심으로」, 『한국외대 이문논총』 18, 1998
이유진, 「1920년대 한국 여성시 연구-김명순·김일엽·나혜석의 시를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이윤성, 「정체성과 잡종성: 그 오래된 이야기」, 『경희대외대어문논총』 9, 1999
이은경, 「여성작가가 바라본 노인: 희곡 작품을 중심으로」, 『숙명여대어문논집』 7, 1997
이호숙, 「나혜석 문학 연구-그 페미니즘의 허와 실」, 『문학과 인식』, 1994 가을호
이효재, 「한국 가부장제와 여성」, 『여성과 사회』 7, 1996. 6
임호준, 「국가로서의 여성: 혁명후 쿠바 영화에서의 페미니즘과 민족주의」, 『서울대이베로아메리카연구』 11, 2000
장정윤, 「응구기의 한알의 밀알에 나타난 탈식민적 상황 연구」, 『숙명여대원우논총』 17, 1999
전대웅, 「신여성과 그 문제점」, 『효성여대여성문제연구』 5·6, 1976
정영자, 「나혜석 연구」, 『부산여류문학』 제7집, 지평, 1987
정현욱, 「세이머스 히니의 시에 대한 탈식민주의적 접근」, 『부산대효원영어영문학』 17, 1999
최지원, 「나혜석 문학 연구-경희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한명숙, 「조선시대 유교적 여성관의 원리론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허미자, 「근대화 과정의 문학에 나타난 성의 갈등구조 연구: 김명순·

나혜석・김원주」, 『성신여대연구논문집』 34, 1996
홍복선, 「한국초기의 여류서양화가 나혜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0
황민수, 「정월 나혜석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1999

<기타>
나혜석, 「파리의 모델과 화가생활」, 『삼천리』, 1932. 3
이광수 외, 「만혼타개좌담회」, 『삼천리』, 1933.

Study on Post-colonial Feminism of Na Hye-Seok
- Focusing on 「Kyong-hee」 -

Lee Mi-Hwa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Post-colonial feminism was formed by the influence of post-colonialism. Post-colonialism searches the inheritance from modern history of suppression in the colonial period, that is to say, the residual influence from the colonial period that remains and exerts its destructive power in more complicated and tricky forms even after the independence, identifies the true characters of the influence and sets up against those influences.

Post-colonial feminism on the basis of those perspective of post-colonialism deals with women's problem that has been recognized as others in the adrocentric society, that is to say, the problems of the women who are not western women. That is to say, post-colonialism and feminism have the common target to recover "the others" who have been marginalized in repressive adrocentric

society. These ideologies have common points as accommodating the post-structuralism and denying and overthrowing hierarchy and binary opposition of the gender/race system and patriarchy/colonialism. In other words, post-colonial feminism includes the gender issue that was marginalized in post-colonialism because it is impossible to explain the dual colonization that the women in the third world suffers from if the gender issue is not considered.

Na Hye-Seok in this study is understood as the existence who has duality as 'Women' and 'colonized personnel' at the same time in the perspective of post-colonial feminism. Because Na Hey-Seok was one of the leaders in the 1919 independence movement with Kim Hwal-Ran and Park In-Deok and prisoned for five months with the reason that she attended in the secret meeting and planned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this sense, she was the colonized personnel. When considering her life, she could not be free from the women's fate under the patriarchy.

「Kyong-hee」 (1918) is the best masterpiece among six short stories. It describes that the self consciousness and establishment of subjectivity as the human being is more important than the marriage that a father forces and the traditional life as a woman and the education is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this. Na persuades the necessity of the education for women as explaining that the modern education can help the performance of the traditional roles of women.

However, even the woman whom Kyong-hee sets as ideal modern women in 「Kyong-hee」 cannot deviate from the wise mother and

good wife that the colonialized country suggests and is based on the division of sex role that men from the colonializing country and colonized country build up.

Therefore, it is required to study in the aspect of the criticism of post-colonial feminism that is the theory to review history or literatures of the past colonial period.

This study focused on the short story 「Kyong-hee」 for the research on post-colonial feminism of Na Hye-Seok and aims to identify the meaning and limit of post-colonial feminism of Na Hye-Seok.

Therefore, as examining the life of Na Hye-Seok, this study reviews the life of Na as the resistant post-colonial feminist and the nationalist who confronted to the imperialism of Japan and focuses on the life of Na who insists and practices the feminie writing in the aspect that post-colonial feminism insists that women have to find their own voices and languages.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s that 「Kyong-hee」 resisted the suppression of traditional patriarchy among suppressions on the modern women but coped with the suppression of the imperialism of Japan on the women in the aspect of a wise mother and good wife theory of colonial period.

Korea that passed through the modernization under the colonialization of Japan requires the post-colonial perspective as reflecting the modernity. Therefore, it is meaningful to interpret the women's history during the colonial period again in the aspect of

post-colonial feminism. In addition, when these kinds of activities are continuously repeated, the women's literature in Korea will be developed.